



#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 시대의 도래
2. 문화다양성 개념의 재정의 필요성
3. 한국인의 기존 문화의식의 변화 요구
4. 한국인의 문화적 위상 제고
5.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 1.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 시대의 도래

### □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적 인재의 양성과 활용의 필요성 증대

- 오늘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은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회전되는 곳, 재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임<sup>1)</sup>
- 창조적인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음. 즉 도시의 다양한 경제 및 사회구조가 진정한 성장동력 역할을 함
  - 뉴욕과 같은 도시가 몇 차례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다양한 산업의 공존과 전세계 인재들을 유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

### □ 전체 노동 인구의 창조적인 재능과 문화 다양성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

-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고 가기 위하여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 인구에서 창조적인 재능을 이끌어내야 함. 미래의 발전은 모두가 참여 가능한 창조의 용광로를 만들어가야 함<sup>2)</sup>
- 개개인의 창조성을 최대한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다양한 측면들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함.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성장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임

### □ 문화다양성은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가치창조를 위한 힘의 원천

- 창의성 개념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반영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시대에는 문화, 가치, 감성, 제도 등 소프트 파워가 중심적인 경쟁가치가 됨
- 다양성은 가치창조를 위한 힘의 근원임과 동시에, 창조경제는 창조적 자산과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됨

1) R. Florida 저, 김민주·송희령 역, 『제3차 세계리셋: 아이디어 중심 창조경제로 비즈니스 새 판 짜기』, 비즈니스맵, 2010, 86쪽.

2) R. Florida 저, 김민주·송희령 역, 앞의 책, 220쪽.

## 2. 문화 다양성 개념의 재정의 필요성

### □ 기존의 협의의 문화다양성 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거시적 차원의 논의 필요

-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영역이 결혼이주여성문제, 외국인 노동자문제로 제한되어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화 소수 집단의 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음
- 인구의 2%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을 다양한 목적으로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인구도 갈수록 늘고 있음. 문화다양성의 논의가 외국인 및 외국 여행 경험 등에 한정되어 온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 타문화의 삶의 방식의 이해와 글로벌 시민의식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이들 ‘타문화’ 출신 이주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부재한 채 이루어지는 ‘복지’에 관한 관심은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비록 현재에는 소수이지만 점차 증대되는 ‘타문화’를 갖고 있는 국민(시민)들의 존재는 한국이 이제까지 강조해왔던 ‘민족 문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함

### □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해야 함

- 다른 한편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달라지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임. 특히 한국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면서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캠페인성 지침에서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음
- 여기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모두가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

## □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글로벌 시민의식의 배양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연계됨

- 국제적 감각은 외국 문화를 잘 아는 것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함
  - 인권헌장이나 여성차별철폐조약 등의 유엔 국제협약과 UNESCO의 ‘문화다양성’ 협약 등은 모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기본권의 지구화를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 감각으로 간주됨.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세계시민의식을 요구받고 있음

## □ 창조성의 잠재 영역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 최근에 제기되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한국 문화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창조경제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창조성의 잠재 영역으로 문화 다양성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

##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관점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

-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창조성의 결과로서 각 집단이 지닌 전통과 정체성에 의해 나타나는, 즉 다양한 창조성의 결과임
-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제를 확보해 줌과 동시에 지배문화나 수입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차별화를 조성해 줌
- 문화다양성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다양한 문화의 융합은 인간과 사회의 창조성을 배증시켜 줌
- 문화다양성은 각 집단의 활력과 역동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다양한 집단을 서로 이해하고 보다 심도 있는 관계를 형성해 줌

### 3. 한국인의 기존 문화의식의 변화 요구

#### □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강조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 필요

- 한국인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 민족이며,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강조해왔던 종래의 관념은 새로운 문화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한반도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과 문화적인 척도로 판단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음
- 이러한 괴리는 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2, 3세를 한국 사람으로 또는 한국 국민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초보적인 질문을 단계를 넘는 것임.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문화적 관습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까지 그 논의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 혈통론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민족주의로 전환

- 혈통주의적 의미를 갖는 ‘단군자손론’은 식민지시대에 단일민족론의 형식으로 등장하여 해방 이후의 분단 과정에서 또한 한국동란과 이후의 국가적 동원 체계의 형성과 운용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
- 국가와 민족의 범위 일치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정권유지와 자원동원에 매우 유용한 환경과 도구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며,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도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 담론의 범위 내에서 보다 선명한 민족주의를 위한 경쟁을 하였던 것임
- 이와 같이, 단일민족론은 단순한 식민주의의 유산이 아니며 전후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로이 재생산되고 발전된 것이었으므로, 왜 단일민족론이 지속되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단일민족론이 자본주의를 표방한 남한과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에서 그토록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현대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아무런 심각한 고민이나 논의 없이 관료나 시민단체에 의해 주장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줄 것임

## □ 국제적 교류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감각을 강조하는 추세 반영

-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달라지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임. 특히 한국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면서 외국에서 온 외국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캠페인성 지침에서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음
- 여기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모두가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 있음

## □ 한국인의 집단이기주의와 폐쇄성, 그리고 내부적 구별 짓기 한계를 극복해야

- 한국인의 집단이기주의와 폐쇄성의 문제는 심각함. 전통적인 연줄문화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여 지역, 학력, 계층, 직업, 성별, 혼인 상태 등의 조건들로 서로 구별 짓는 경향이 현저함. 한국인들 사이에 문화적 장벽이 만들어져 ‘우리’라는 집단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시키는 현상은 일상적인 문화의 일부임
- 이러한 연대와 구별은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낯선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만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관행에 대한 성찰적 검토를 요구함.
- 따라서 개방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문화 다양성 존중은 우리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임
- 여태까지는 주로 과거지향적인 민족문화를 추구하면서 원형 등을 중시해 왔으나, 이제는 구성원들의 가능성과 열망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고 나아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춘 미래지향성을 확보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국민행복) 제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4. 한국인의 문화적 위상 제고

##### □ ‘한국문화’의 외연 확장

- 기존의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는 입장이 필요함
- 우선 문화의 주체를 이른바 순혈의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재외국민+한국계 외국인) 및 한류팬을 포함하여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하고, 이들이 지닌 다양한 가치, 관습, 행동양식 등을 ‘한국문화’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이 ‘한국문화’는 국민국가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면서, 당연히 제국주의적인 개념도 아님. 왜냐하면 이것은 자발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서 일방적이지 않으며, 대안적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임
- 또한 ‘한국문화’의 범주에 한국문화 애호가와 한국문화연구자(전문가, 실천가)를 비롯하여 한국문화발전에 기여할 사람들을 포함시켜 감으로써 외연을 확장해야 할 것임
- 20세기 한국이 경험한 모든 것들—경제성장, 산업화, 민주화, 여성권리의 신장, 환경운동의 성장 등—은 매우 풍부하며,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전제로 한국인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이러한 한국인의 문화적 경험은 전 세계에 깊은 호소력을 지닐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문화융성’을 향해 가는 길이 될 것임

##### □ 포용적인 문화다양성 개념 강조로 한국 내 다양한 문화요소의 활력 강조됨

- 한국 문화 내부에 자리 잡은 풍요로운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문화창조의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요소들의 생산을 자극하여 세계문화에서도 한국문화의 창조적 역할을 확대할 것임
  - 기존의 ‘민족 문화의 보전과 창달’이라는 슬로건에 등장하는 민족 문화의 개념에서 가장 강조되어 왔던 것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 속



에서 이어오는 전통이며, 한 조상을 가진 배달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음.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초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강조는 과거지향적인 차원에서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시각에서 문화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을 빚고 있음

#### □ 문화다양성의 제고를 통하여 호소력 있는 문화의 융합과 혼성이 확대 될 것임

- 대중음악이 한류에서 보여준 것처럼 서구적 요소를 한국적 요소와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혼성문화가 나타나듯이,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융합 또는 혼성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문화를 생산해낼 것임
- 한국의 아이돌그룹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처럼 한국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외국인 참여가 증가하고 문화 예술분야에서도 다양한 외국인들과 다양한 한국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문화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한국화된 다양한 문화의 해외에 대한 호소력도 증가할 것임

#### □ 다양한 한국적 문화요소들을 결합하여 세계문화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국내외 문화요소의 공존을 통해 문화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문화요소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면서, 한국문화요소들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확산이 제고되고 한국적 문화요소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제고될 것임
- 한국의 문화다양성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계문화에서 한국문화의 활력을 제고하고, 창조적인 역할을 확대하며,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할 것임

## 5. 미래 지향적인 문화 정책의 수립

### □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최근 한국 사회에 증대되어진 이질적 문화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 이주 자들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출발하기는 했지만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야기됨
- 문화를 정형화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의 각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분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문화들이 특성을 갖게 됨.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문화의 풍부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한국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하고 이질적인 측면을 드러내어 문화 내 동력으로 인정해야 함.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요소 등이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장만해주는 것이 주요한 현대의 문화정책이 될 수 있음
- 문화 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 자체의 성격과 관련이 있음. 이질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현상은 그 자체로서 장점이 될 수도 있음

### □ 이질적 문화가 주류 문화의 변화를 유발하여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한국 문화가 동질적인 민족 문화로 일반화된 상태에서 주류로부터 벗어난 소수자 문화, 이탈적 문화, 지역 문화 등의 구성을 통하여 다양성의 층위를 볼 수 있음. 문화 내부의 이질적 요소들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문화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것임
- 문화 다양성이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들의 증대와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지만 한국 문화 내의 이질적인 집단이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를 통하여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그 기초가 될 수 있음. 왜냐하면 문화는 문화 특질 또는 문화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이것들이 관련을 맺고 있는 독특한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는 민족문화의 기반 위에 다양한 외부 문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한국문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즉 한국문화의 다양화와 창조성의 확대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적 입장에서 정리된 문화개념은 미래지향적 문화정책과 연결되어야 함**

- 현재의 민족 문화 담론을 넘은 국민 문화, 민족문화와 외국 문화의 자원을 넘어서는 문화개념을 한국의 입장에서 개념화시킬 필요가 있음
-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대 한국은 국내외적인 문화적 도전 속에서 세계적으로 커다란 호소력과 매력을 가진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있음. 식민 지배, 전쟁, 경제성장, 민주화, 산업화, 여성권리의 신장, 공해와 오염, 환경운동의 발전, 문화와 IT산업의 성장과 같은 현대의 경이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미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임
- 고민해야 할 것은, 민족문화 또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정책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할 때, 전통 중심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문화정책은 무엇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함

## 제2장

# 문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 I 문화·다문화·문화다양성의 개념

1. ‘문화’ 개념의 역사적 전개과정
2. ‘문화’ 관련 개념의 현상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다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문화다양성 개념

### II ‘한국문화’ 정립을 위한 민족주의·민족문화의 재검토

1. 한국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 혈통론인가 문명론인가?
2. 인식의 전환을 위한 민족주의의 재검토

## I 문화 · 다문화 · 문화다양성의 개념

### 1. ‘문화’ 개념의 역사적 전개과정

#### □ 서구의 프로젝트=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문명’과 ‘문화’

-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문화(culture) 개념은 문명(civilization) 개념과 함께 근대 서구에서 등장한 지극히 서구적인 개념으로서 메이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문화와 문명이라는 번역 용어로 확립한 것임
  - ‘문명’과 ‘문화’는 초기에는 그 의미가 서로 혼용되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는 물질적인 것을 지칭하기 위해 ‘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점차 오늘날의 용법으로 의미가 정착됨
- 문명(civilisation, civilization)이라는 용어가 먼저 등장하여 부르조아계급의 성장을 기반으로 의미변화를 거치게 됨
  - ‘문명’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시민(civis)과 도시국가(civitas)와 관련. 그 형용사 ‘civilis’ 및 ‘civilitas’ (시민권, 공손함, 예의바름, 세련됨) 등에서 유래. 로마시대에는 미개한, 야만적인, 군사적인, 형사처벌적인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 도시적 삶의 세련됨과 우월성을 당연시함
  - 근대 유럽에서 처음에는 단순히 정중함과 세련됨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봉건영주들의 궁중예절(courtoisie)보다 더 우아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 절대왕정 초기에 서서히 궁중에 진출하기 시작한 부르주아 계급의 영향력을 나타냄<sup>3)</sup>
  - 이후 동사화(시빌리제, civiliser)와 명사화(시빌리자시옹, civilisation) 과정을 거치면서 궁정귀족들의 허례허식과는 달리 학문과 예술, 문학, 종교 등 정신적 영역 및 사회, 정치,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발전과 개혁을 지칭하기에 이룸. 시민사회가 곧 이상적인 사회, 문명사회가 됨
  - 특히 프랑스 혁명 후에는 하나의 보편적 문명으로서의 유럽문명이라

3) 황수영 2008 “대립개념과 보완개념들을 통해 추적한 문명 개념의 변천과정” 『개념과 소통』 제2호

는 생각이 등장하면서 프랑스문명이 유럽문명의 첨단으로서 그 모범이라는 견해가 등장

- ‘문명’ 개념은 동사로서 사용되면서 유럽 내부나 외부의 야만적인 타자들을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교육시키자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진보 개념과 밀접히 관련됨<sup>4)</sup>
- ‘문화(culture)’는 라틴어 ‘경작하다(cultus/cultura)’에서 유래하였으며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뒤늦게 등장한 용어
  - 경작되지 않은 땅과 경작된 농토 사이의 차이처럼 모든 인간의 정신적 개발과 발전 가능성을 강조. 다만,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했던 시민(civis)나 도시국가(civitas)와 관련된 ‘문명’과는 달리 개인으로서의 인간 활동과 관련
  -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지배하에 인본주의적인 cultura보다는 신학적이며 종교적인 숭배(cultus)만 널리 사용됨.
  - 근대에 들어와 ‘문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다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다가 독일에서 ‘문명’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
  - 이후 문화(Kultur, culture)는 보다 고상한 차원의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게 됨. 독일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경제적 토대와 정치력이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기도 함.
- ‘문명은 국민국가 영국과 프랑스의 이데올로기, 문화는 국민국가 독일의 이데올로기’<sup>5)</sup>
  -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가 늦었던 독일에서 문화(Kultur)는 주로 정신적인 성취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화, 도시화가 앞섰던 영국이나 프랑스의 문명(civilization) 개념에 대항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음
  - 독일에서 등장한 문화 개념은 물질이나 기술의 차원에서 또는 기교나 세련됨에서는 못하더라도 정신적이나 도덕적 측면에서는 대등하

4) 나인호 2003 “문명과 문화 개념으로 본 유럽인의 가치의식(1750-1918/19)” 『역사문제연구』 제10호.

5) 西川長夫 著, 한경구·이목 역,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6.

거나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여러 인간집단의 정신적 성취와 가치는 그 자체로서 이해해야 하며 선진국의 척도로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짐

- 물질적, 기술적, 제도적으로 뒤떨어진 민족이 정신적으로는 더 고상한 문화를 가질 수 있다면, 석기를 사용하는 등 물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소위 야만인이나 미개 부족들에 대해서도 ‘문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됨
- 그리하여 타일러는 문화를 정의하면서 물질적, 기술적 발전의 정도는 문제시하지 않았음. 즉,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그 외에도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잡한 총체라고 정의하였음

(that complex whole which includes knowledge, belief, art, morals, law, custom, and any other capabilities and habits acquired by man as a member of society)

- 이와 같이, 문화라는 개념은 선진국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후진국 독일의 독립과 자존심, 민족통일 및 국민국가 건설의 정신적 토대로 발전했는데, 이후 서구 선진국에 대한 비서구 후진국의 자존과 독립을 주장하는 이론적 논의의 핵심 개념으로 발전

#### ○사회적 진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문화상대주의의 등장

- 소위 지리상의 “발견”으로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수많은 인간 집단들을 진화주의자들은 몇몇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여 보편적인 문명 발전의 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배치하였음
- 그러나 문화 개념이 발전하면서 이들이 서로 우열을 비교할 수 없는 각기 독특한 가치를 가진 삶의 방식을 가진 것이라 이해하기 시작하여, 단수대문자로 ‘문화(the Culture)’라고 쓰던 것을 복수소문자로 ‘문화들(cultures)’이라 쓰기 시작함

## □ 문화인류학적 ‘문화’ 개념

○타일러 이후, 전파주의자들은 문화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특질(culture traits)들의 전파에 주목했기 때문에, 특히 각 문화들 간의 접촉과 교류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인류학은 과거의 문화 전파의 경로와 집단 간의 접촉을 밝혀 내는데 기여하였으나, 진화주의 인류학의 억측에 의한 단계 구분 등에 대한 반발과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자칫 비생산적인 ‘문화특질 리스트’ (trait list)의 인류학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었음<sup>6)</sup>
- 이는 문화의 내적 통합이나 혹은 지속적 패턴을 발견하려는 작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전파주의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근대적인 인류학이 등장함

- 역사적 특수주의(Historical Particularism)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아스(Franz Boas)는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들은 서로 많은 문화특질들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나름대로의 통합을 이루면서 상이한 패턴이나 형상(Configuration)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의 경계는 그리 단순하거나 명료하지 않고 다층적이며(multiple) 서로 겹치고 있고(overlapping) 상호 침투(permeating)하고 있다고 간주함
- 보아스의 제자였던 루스 베네딕트는 『문화의 패턴』(*Patterns of Culture*)에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한편 ‘영국 사회인류학(British Social Anthropology)’도 사회나 문화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문화적 행위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음. 특히 영국 사회인류학의 기능주의(말리노우스키)와 구조기능주의(레드클리프-브라운) 학파는 사회와 문화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기능적으로 연관을 맺으면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음

6) 이와 같이, 전체에 주목하지 않고 그 구성부분에 주목할 경우 문명(civilization)이란 인류학자인 로위(Lowie)가 언급하였듯이 ‘누더기로 이루어진 것’ 또는 ‘무계획적인 뒤죽박죽’ (a planless hodgepodge)이 되어버린다.



### ○문화적 긴장과 문화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

- 단순사회를 연구해 온 인류학자들은 문화와 사회 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사회 내에 다양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경쟁적인 문화적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음
- 전통사회에서는 가치와 규범과 현실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은 물론, 가치들과 규범들 사이에도 모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사회와 문화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본질적인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인접하고 있는 사회집단이나 이들의 문화가 서로 매우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사회나 문화의 특징들이 장기 간에 걸친 교류와 접촉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시켰고,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문화의 교류 및 모방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지적하였음
- 특히 베네딕트는 문화가 강조하는 규범이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고 관용을 주장하여, 문화가 매우 억압적이기도 하므로, 문화로부터의 자유가 인간에게 소중한 것임을 밝힘

### □ 동아시아의 역사와 질서 내에서의 ‘문화’

#### ○문치교화(文治敎化)로서의 문화=문명화 개념(civilization process)

-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문화란 ‘人文敎化’ 또는 ‘文治敎化’라는 표현을 줄여서 말하는 것인데, 文治는 武治와 구분되는 것이며, 敎化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로서, 이미 올바른 방향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가르치는 주체와 가르침의 대상이라는 불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 문화라는 용어는 메이지시대에 일본인들이 culture를 문화로, civilization을 문명이라 번역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civilize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음
- 조선시대의 임금은 도덕적으로도 우월한 존재로서 백성을 교화할 것이 기대되었고 임금의 명령은 교(敎)라고 했음
- 한편 공산주의 정권의 독재자들도 국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스탈린과 모택동도 전집을 발간했고 북한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은 끊임없이 “교시(敎示)”를 발(發)하면서 가르치려고 했음.

#### ○메이지 유신과 서구용어의 수용과 번역

- 메이지 유신 이후, 본격적으로 독특하고 유서 깊은 국민문화와 국사(國史)를 ‘창출’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하던 일본은 culture를 문화로, civilization을 문명으로 번역하였음
- 일본은 국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스스로 문명화 작업의 주체를 자임하며 자국민과 주변 국가들을 문명화 작업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압도적인 선진 문명을 가진 서구에 대해서는 일본 문화의 특수한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요구하였음
- 결국 일본은 문명과 문화 개념을 모두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전략적으로 채택했던 것임

#### ○동아시아의 국민국가주의(nationalism)와 ‘국민문화’의 특징

- 제국주의 침략과 냉전을 겪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국가가 이상화된 동아시아에서는 근대 서구에 비해 ‘사회’가 ‘국가’에 비해 약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의 역사적 경험은 동아시아인들로 하여금 더욱 더 강한 국가를 바라게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각 지방의 전통과 자율은 약화되고 또한 억압되었음
- 동아시아인들은 근대에 들어와 국민국가를 단위로 단결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국가 내의 여러 지방이나 소수민족은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상실하였고 급속히 국민으로 통합되었으며, 국민국가의 상당한 주민과 지역이 국민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희생되면서 ‘내부 식민지’ 또는 ‘국내적 제3세계’로 전략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지방의 언어는 국어(national language)가 되어 국민국가의 문화(=국민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음
- 국민국가는 유일한 단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개인의 자유나 인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 등—이 국민국가와 관련되어 있어서, 국민국가주의(nationalism)는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2. ‘문화’ 관련 개념의 현상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문화, 문화다양성, 다문화주의 등의 개념에 대해 혼란과 오해가 많은 것이 현실

- 문화와 문명은 근대 서구의 자기 인식과 더불어 발전된 개념이며, 국민국가, 민족주의, 지리상의 발견과 세계화, 제국주의,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전쟁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해 왔음
- 개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각자 편의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초래하여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 특히 다문화주의 담론의 경우, 다민족 사회인 국가들에서 오랜 고통과 고민을 거쳐 형성된 단계나 과정을 배제하고 최종단계의 담론만 소개된 전형적인 예
- 따라서 개념이 발전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쟁점과 문제점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 문화개념의 다양한 의미와 용도의 문제

- 문화인류학 내에서도, 문화를 문화적 활동의 산물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디자인으로 파악하기도 하며, 의미나 상징적인 체계에 한정하여 사용하려는 시각 등이 다양하게 등장
- 또한 총체적 삶을 생계유지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과 정치나 사회적 제도와 관련된 부분, 상징이나 가치와 관련된 부분 등으로 나누어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욱 핵심적이거나 결정적이라고 파악하는 논의도 다양하게 발전.
- 이와 같이 인간집단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인류학의 문화 개념이 널리 확산되는 한편, 신문의 ‘문화 면’이나 ‘문화예술인’ 등의 용례처럼 여전히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와는 다른 영역의 것, 즉 시인, 소설가, 화가, 조각가, 도예가, 음악가 등의 활동 또는 그 산물로 보려는 경향 또한 여전히 지속

## □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일집단·일문화주의’ ) 는 정치적 가정의 문제

-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는, 근대적인 인류학의 성립기에 당연한 가정으로 확립
  - 형태론,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학파의 등장 이후 많은 인류학자들이 문화를 통합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 전체로서 하나의 문화를 갖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음.<sup>7)</sup>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고전적인 문화 인류학의 문화개념에 입각해 있음. 즉, 다른 문화와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문화가 내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일관되고 뚜렷한 체계 또는 구조를 가지며 하나의 개인이 하나의 문화에 속하면서 문화가 그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합이나 패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
- 여러 다양한 부분이나 요소가 어떻게 서로 결합되는지, 어떻게 체계가 유지되는지, 다양한 개인들이 어떠한 사회화 또는 문화화 과정을 거쳐 공통된 인성(personality)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경위 등을 규명하는데 몰두해 왔음
- 또한, 문화의 단위를 민족 집단(ethnic group) 또는 국민국가라고 전제하면서 하나의 민족 집단은 하나의 문화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다수의 문화를 갖거나 다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그리하여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시대에는, 민족의 존재에 대해, 논란이 많은 혈통 대신에 문화를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음
- 나아가 국민국가의 내적 통합이 강화되고 국가 간 차이가 강조되면서, 이른바 ‘일집단·일문화주의’<sup>8)</sup>가 더욱 강화됨

7) 초기 인류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회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커다란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8) 헤로도투스, 몽테스키외, 스텔 부인 등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민족의 기질이나 국민성에 대한 논의 역시 집단 간, 문화 간 비교를 하면서 집단이나 문화의 내적 다양성보다는 집단 간 또는 문화 간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당연히 ‘일집

- 그리하여 집단 내부의 역학관계, 경쟁과 갈등, 타협과 야합 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비교의 단위 또한 집단이나 문화가 되어 문화 내의 다양정보다는 문화 간의 다양성에 주목하게 되었음

#### □ 국민국가가 문화의 단위라는 가정 : 정치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의 동일시 문제

- 국민국가는 국민문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강력한 국민공동체를 상상하고 그를 근거로 국가적 통합에 노력함으로써 국민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 만들어 냈는데<sup>9)</sup>, 문화는 교류와 모방 등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국경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문화의 경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대의 산물에 불과함
- 국민국가의 아이덴티티는 공간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마치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문화적·사회적 차이를 표시하는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표식인 것처럼 간주됨. 그리고 강력한 동질감이나 단일민족의식 등으로 국민국가의 구성원들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국민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민 집단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남
- ‘장소’의 경계가 점차 더 흐릿해지고 불확실해지는 반면에, 문화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뚜렷한 ‘장소’에 대한 관념이 더욱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현대의 아이러니의 하나임<sup>10)</sup>
- 문화는 현실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현재의 동아시아에서는 문화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동아시아 문화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인간의 상호의존을 강조함으로써 흔히 서구문명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기술만능주의,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중심주의 등이 초래한 착취와 소외, 환경파괴 등 20세기 문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 동아시아의 문화적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고 할

단·일문화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

9) B. Anderson 저,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10) Gupta & Ferguson 저,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Press, 1997.

수 있음

-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한 이른바 “국민성 연구”(national character studies)<sup>11)</sup>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몇몇 단어로 단순화, 일반화시키고 이와 잘 맞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거나 예외로 치부하는 방식과, 있는 그대로의 진실(the whole truth)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소위 화학적으로 순수한(chemically pure) 설명으로 인해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음
- 여기에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등 정치적 의도와 권력이 작용하여, 야만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평정과 제압, 교화와 훈육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목가적인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비현실적이고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 이에 대항하여 비서구적 전통의 미화 또는 비서구적 자아 속에서 서구적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자 등장한 역 오리엔탈리즘적인 노력들도 결국은 동서이분법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함
-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무형문화유산 협약에서도 내포되어 있음. 즉 문화 또는 문화유산의 주체가 국민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국민국가로 가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그 결과, 지역 공동체나 사회 집단이 아니라 국민국가가 문화의 단위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화적 주체로서의 입지는 매우 약함
- 한편, 국민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거나 또는 국민국가 내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의 문화는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정이 될 경우에도 항상 어느 특정 국가의 문화의 일부로서만 인정될 뿐임. 역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예찬이나 민족문화의 보호와 발전과 관련된 논의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저항을 의미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지배를 의미할 수도 있음

11)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소규모의 사회를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과 방법론을 국민국가나 대규모 사회에 적용한 것으로서, 적국인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전후에 출판되었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 □ 나아가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의 문제와 한계

- 인종과 민족 개념이 크게 약화되고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대신에 “공유되었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전통을 중심으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문화민족주의가 등장
- 문화민족주의는 통합되고 공유된 국민문화의 존재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 국민문화의 역사성과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
- 문화민족주의는 혈통민족주의와 비교할 때 훨씬 진전되고 개방된 것처럼 보임. 그러나 하나의 종(種)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확신이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헌신에 입각하지 않고 문화를 내세워 민족의 근본적 우월성이나 특이성을 강조할 경우 혈연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음
- 일본의 니혼분카론(日本文化論)은 바로 그러한 특수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스스로의 다양성을 억제하여 창의성의 발현을 자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소통과 보급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함

## □ 유네스코의 선언 및 협약에 침투한 ‘일집단·일문화주의’의 문제

- 구전 및 무형문화 유산협약은, 문화유산이란 ‘한 문화집단의 전통에 기반하여 창조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하나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의 집단을 대응시키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유산을 둘 이상의 사회나 인간집단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배려를 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직접적으로 ‘국가’라고 하지는 않고 ‘한 문화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문화유산의 등재 및 보호책임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유산은 결국 일종의 ‘국적(nationality)’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2003년의 문화유산 협약은 하나의 문화유산이 정치적 경계를 넘어 다수 국가에 걸쳐 발견되는 경우를 상정하면서 다국 등재(multinational

submission)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공유된(shared) 또는 공동의(common) 문화유산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논의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즉, 문화유산은 국적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공동의 문화유산은 일종의 예외처럼 취급되면서 단지 그 지리적 위치가 다수의 정치적 국경을 넘어 분포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년 11월)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화의 단위가 하나의 사회 또는 하나의 사회집단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음

- 즉, 하나의 문화유산이 다수의 집단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거나 또는 개인들이 다수의 문화나 다수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

#### □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시점(視點)

○특정 문화집단에 속한 성원들이 동질적으로 해당 문화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즉 개별 집단에 속한 성원들은 내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끊임없는 경쟁과 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이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 특정 문화의 주류를 묘사할 수 있지만 그 문화는 내부의 경합과 타협을 통해 다른 시점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로 변화할 수 있다는 시각임

○구조(structure)보다는 과정(process)을 중시해야 함. 문화는 여러 다양한 주제나 요소들의 대결과 경쟁, 갈등과 타협, 설득과 강제의 장(場)이라 간주되며, 사회 내에서 일부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세계관 또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스스로는 물론 사회의 일부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기도 하므로, 문화 내부에 많은 모순과 경쟁, 이해관계의 대립과 투쟁을 발견하며 우리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일시적인 타협이나 해결책에 불과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집단 간, 문화 간 다양성 뿐 아니라 집단이나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주목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양성의 지속을 보장하고 그 발전과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3. 다문화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기본 개념에 대한 검토: 문화적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 ○문화적 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

- 문화적 다원주의는 지배적 문화(dominant culture)의 존재를 상정하고, 여러 집단이 그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함
- 미국의 실용주의철학과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20세기 초 미국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등장하였는데,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의 문화가 지배적 문화에서도 보유했을 가치가 있다고 간주함
- 당시 미국은 대규모 이민의 유입으로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었는데, 문화적 다원주의는 미국사회에서 강조하던 동화모델과 관련이 있음
-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나 프랑스로 대표되는 통합주의의 기본적인 태도란, 공적인 영역에서는 호스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야 하며, 고유의 문화는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서만 그 유지가 허용된다고 하지만, 사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가 그다지 명확하거나 용이한 것은 아님

##### ○문화 동화 Cultural Assimilation

- 일방적 동화와 자발적 동화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이민자 집단 또는 소수집단의 시각에서는 문화 탈락(deculturation)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미국은 자국으로의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여겨, 미국사회나 문화에 대한 적응이나 동화는 자발적이며 당연한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음<sup>12)</sup>

####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 인도가 선구적이었으나 서구학계에서는 무시당함
- 캐나다에서는 프랑스어 사용 주민 문제와 이민 문제로 등장.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특수한 역사적 사정에 연원을 두고 있음. 캐나다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주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사용 주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성직자 이외에는 철저히 이주를 금지했었음
- 호주는 백호주의에 대한 반성, 애버리진(호주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이민 문제로 등장
- 캐나다와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 외에 특수한 지리적 조건도 중요. 캐나다와 호주는 모두 국경 관리와 통제가 용이. 따라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바람직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이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다문화주의의 고상한 규범들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허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이민을 희망했으나 기회를 거부당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상대적으로 국경관리가 어려운 다른 국가들과는 사정이 다름
- 일부 주창자들은 동화주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비판자들은 모든 문화들이 동일하고 평등한 것이라는 의미로 간주하면서 비난하고 있음
- 다문화주의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liberalist approach, corporate pluralist approach, radical pluralist approach, ethnic federalism pluralist approach, separatist approach

#### ○상호문화주의 / 문화간상호주의 / 문화간상호교류주의 Interculturalism

-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화를 핑계로 특별

12) 특히 미국은 유럽에 대해 스스로를 ‘신세계’ (New World) 또는 ‘신천지’ 라고 규정하는 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 한 대우나 관용을 요구하거나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대화(dialogue)와 소통(communication)을 강조함
- 집단이나 문화보다 개인에 대해 강조하고, 다문화주의의 본질주의(essentialism)에 대해 비판적임

#### □ 다문화주의의 현황과 문제점

- 문화의 주체단위가가 하나의 사회 내지는 사회집단이고, 하나의 사회나 집단은 오직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
  -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의 단위나 주체는 국민국가이며, 이민자들은 출신 국가의 국민의 일부로서 그 국가의 문화를 담지한 것으로 간주될 뿐, 이민자 집단의 내적 다양성은 중시되지 않음
- 개인은 오직 하나의 사회나 집단에 속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고, 개인이 다수의 또는 중층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질 가능성은 크게 중시하지 않음
- 문화의 경계를 강고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분리주의를 조장하거나 문화적 계토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때로는 소수집단 내부의 독재를 예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나아가,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집단들 및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존재에서 기인한 다양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다양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내적 다양성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 다문화주의 및 정책의 주요 국가의 정치인들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였음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010년 10월 16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2011년 2월 5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2011년 2월 9일)이 잇달아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인정함. 이에 힘입어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
  - 하지만 이들은 실패를 이민자들의 탓, 즉 이민자 집단의 비타협적 태도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강력한 배제와 동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한국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가 가진 여러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며 전진적인 것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음
- 본격적으로 국제 이주를 경험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전개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기본적 성격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거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06년을 계기로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정책은 주로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에 집중되었고, 부처 간의 경쟁, 사업의 중복, 국가 다문화주의, 관 주도 다문화주의 등의 비판을 야기하기도 하였음
- 또한 한국 내에는 국가와 민족과 관련하여 매우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고민과 긴장이 내재하고 있음. 즉 민족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이 있고, 사회적 불안과의 연계, 외국인의 정치적 세력화에 대한 우려도 있음

#### 4. 문화다양성 개념

##### □ 문화다양성 개념은 생물다양성 개념에서 유추된 것임

- 문화다양성 개념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멸종의 위기에 있는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강조되었음
- 사회적 진화주의(Social Darwinism)가 주도적이던 시기에는 개체나 종의 소멸이 자연적인 질서의 일부로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이나 문화의 소멸 역시 문제시 되지 않았음. 심지어 빈민구제나 장애인 보호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나 원주민과 그 문화에 대한 배려는 생존경쟁에서 도태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인류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음

-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진 뒤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의 보존 개념 또한 뒤늦게 등장함. 즉,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적 수탈, 국민국가의 건설과 국민 통합, 그리고 근대화와 경제 발전 노력 등으로 수많은 문화와 민족이 사라지거나 생존을 위협받게 되면서 등장하였음
- 문화다양성은 단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임. 다만 문화다양성 보호의 기본 취지와 의의는 레비-스트로스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음
- 그런데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이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고, 국민국가의 정부가 민족주의적 관심은 물론 자국의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산업 등이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문화 분야도 예외 없이 시장 개방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또는 문화 분야만큼은 자유 무역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 문화다양성의 두 가지 차원

- 문화다양성은 흔히 각기 이질적이고 고유한 문화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즉,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다양성으로 이해됨
-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집단이 가진 문화 내에 존재하는 ‘문화 내적 다양성’임. 즉 문화다양성은 ‘문화 내’ 다양성이기도 함
- 현대 한국사회의 중요 과제의 하나는 ‘문화 내적 다양성’의 증진임
  -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는 타문화(other culture)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신의 삶이 유일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존재는 대안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로써 현행 제도나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문화 내 다양성에서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적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또는 조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그리고 개별 문화의 보존

-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목표는 창의성의 확대가 되어야 함
  - 창조의 핵심적 요소는 다양성과 관용이며, 정책은 보다 인간적인 삶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소수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긍정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창의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 다만 문화다양성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므로,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관계설정이 매우 중요해지며, 이 때 개별문화의 보존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관행 및 관습을 포함하여 실정법과 문화다양성의 충돌이나 문화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이른바 ‘문화적 항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개별 문화를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모든 문화가 불완전하며 내부적으로 모순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특정한 문화적 관행이란 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이 문제는 흔히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오해 및 비난과 함께 자주 제기되는 것이기도 한데, 문화다양성에 관한 “선언”과 “협약”이 시장개방 문제와 얽히면서 더욱 복잡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
- 문화상대주의는 인종주의, 사회적 진화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배에 의해 토착민의 삶이 파괴되고 이들의 사회와 문화가 대량으로 소멸되는 시기에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창된 것으로서,

문화를 자신의 문화의 기준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이해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 모든 문화 또는 모든 문화의 관습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가치상대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문화다양성의 보존이 한편으로는 소수자의 문화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을 문화의 구성원으로 서만 파악하면서 문화를 실재하는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그 결과 문화 간의 경계를 고착화시키거나 심지어는 민족집단 (ethnic group)을 계층에 고정화시키는 기능도 함
- 또한 문화상대주의의 주장이, 다른 문화가 나름대로 완전무결하다는 의미는 아님. 우리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는 문제투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임

## II ‘한국문화’ 정립을 위한 민족주의 · 민족문화의 검토

### 1. 한국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 혈통론인가 문명론인가?

#### □ 단군의 후예와 혈통론적 민족주의의 오해

- 우리는 공통의 언어와 풍습, 역사만이 아니라 단군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순혈주의라는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단군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단군의 후예’를 칭한 것은 우리 민족 모두가 단군의 핏줄을 이어 받은 혈연공동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고려와 조선이 ‘단군 조선을 계승한 나라’라는 의미였음
  - 이와 같이, 단군의 후예를 순혈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물론 일부 학자들조차도 ‘단군의 후예’를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의 기초 또는 증거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의 내적 다양성을 무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단군의 자손이라는 주장은 소위 삼한정통론<sup>13)</sup>에서 비롯되는 것임.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우리가 중국에 못지않은 당당한 문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 즉, 단군에 의해 중국 못지않게 오래 전에 이미 나라가 건국되었고 또 기자에 의해 중국 못지않게 오래 전에 교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단군과 기자를 계승한 조선은 중국에 못지않은 당당한 문명국가(즉 우리도 中華)라는 의미임
-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혈통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의 혈통을 중시한 것이지 민족 전체가 동일한 혈통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을 가진 적은 거의 없었음.

13) 삼한정통론은 고려 후기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를 통해 문자로 기록되었고 조선 초의 권근 등에 의해 제기되어 실학자인 성호 이익 등에 의해 논의가 완성되었다(이우성, 1976; 1966, 송찬식, 1976; 1970).



- 유교 역시 제후와 대부의 가계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적통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양에 의한 인간의 완성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혈통보다도 교화, 즉 문화화의 가능성과 성취가 더욱 중요했던 것임.
  - 삼한정통론도 우리나라를 정통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혈통에 의한 화이(華夷)의 구분보다는 문화화의 시기와 성숙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문명론적인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음
  - 과거에 왜(倭)나 여진족에 대한 차별 또한 바로 이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문명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음
- 따라서 우리에게 근대의 ‘민족주의’와 관련되는 유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혈통론보다는 문명론적 민족주의에 주목해야 함

#### □ 문명론의 몰락과 혈연민족주의의 등장

: ‘단군의 건국과 기자의 교화’에서 ‘단군할아버지의 자손’으로

- 단군이 국가 개국의 시조라는 유교적 해석에서 한민족이라는 혈연집단의 시조로 뒤바뀌고 중국에 못지않은 문명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주의”가 혈연을 공동으로 하는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로 뒤바뀐 것은 근대에 발생한 것임
- 소위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란 유교를 공식적 이념으로 하고 있던 조선시대에는 발전하기 어려웠던 것임
- 단일민족이라는 발상은 피히테 등 겉으로는 언어와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혈통으로서의 민족을 강조했던 독일식 민족주의의 일본판에서 비롯된 것
- 천황가를 본가(本家)로 하고 모든 신민을 천황의 적자(赤子)로 상정하는 일본의 가족국가관과, 단일하고 순수한 기원을 지닌 일본민족만으로 일본이 구성되어 있다는 일본 발 단일민족신화가 크게 작용하였음<sup>14)</sup>

14) 이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데, 예를 들어 신기욱(2006: 19)은 민족의 동질성 의식이 일본에서는 전후에 비로소 등장한 것이라는 주장(Lie, 2001)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의 단일민족의식이란 식민지 상황에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한 혈통과 계보를 강조하면서 발전시킨 것이라 보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단일민족론은 일본보다 식민지 한국에서 먼저 등장한 것이 된다.

- 한국의 단일민족론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내선일체에 대항하여 발전한 것이지만 이미 구한말에 독일과 일본의 민족론을 의식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나, 문화적 우월감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화이관이나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해왔던 유교적 이념에 대한 확신은 구한말에 근대 서구문명과 식민지화의 충격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음
- 그 결과,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는 문명과 미개를 기준으로 하는 문화민족주의적 전통보다 혈통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단일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으며, 단군의 자손 또한 정통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음.
-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단일민족주의는 해방 후에 전쟁,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냉전을 겪는 가운데 남북한의 민족주의 경쟁, 경제개발과 통일에 대한 염원, 집권세력과 운동권의 민족주의 경쟁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음. 이미 유교적 정통론이 지지와 이해를 상실한 상황에서 ‘단군의 자손’ 개념은 본래의 국가적 계승의식의 개념을 회복하지 못하고 혈연적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된 채 그대로 존속됨
- 특히 조선시대가 허례허식과 당쟁으로 멸망했으며 유교는 근대화 실패의 원인으로 간주되던 상황에서 유교의 교화 개념과 정통론에 기반을 두고 있던 문명론적 단군계승론은 지지를 회복하기는커녕 제대로 이해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리하여 “단군 계승” 개념은 본래의 국가적 계승이라는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한민족의 혈연적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된 채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오히려 국가 총동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음

#### □ 해방공간의 식민지 청산과 민족주의

- 조선시대의 문명론적 의미의 단군계승론이 식민지시기에 저항적 민족주의로 발전하면서 일본의 단일민족론과 유사한 혈통주의적 의미를 가진 단군자손론으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혈통주의적 단군자손론이나 단일민족론이 어떻게 해방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며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일민족주의로 발전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해방 후 한국에서는, 반일이라는 의미에서의 식민지 청산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좌우의 대립과 새로운 국가의 형성, 그리고 한국동란 등 격변을 거치면서, 근대의 형성이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도와 증오의 대상인 일본으로부터 수용하거나 채택한 여러 제도와 수단 등에 대한 차분한 반성이나 검토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음
- 해방 후 노골적인 친일파에 대한 비난과 청산 시도가 있었으며 미국 식 학제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식민지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 활동했음
- 특히 소위 15년 전쟁기<sup>15)</sup>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동원 체계와 민족지상주의 체계 하에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행동규범을 습득한 사람들이 계속 교육현장에서 활동하였음

#### □ 전쟁과 분단 상황 속의 민족주의

- 한국동란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냉전체제 하에서 남북한 양쪽에서 강화된 국가 동원 체계는 패전 전의 일본의 동원체제를 당연히 그 모델로 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패전 전의 일본 민족주의의 많은 요소가 남북한의 민족주의 경쟁, 경제개발과 통일에 대한 염원, 집권세력과 운동권의 민족주의 경쟁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음
- 유럽에서의 후진국인 독일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수용한 일본의 민족주의의 여러 요소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분단되고 전쟁을 체험하였던 한국에서 매우 설득력이 큰 세계관과 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했음
  - 또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민족 단결”이라는 기치 아래 효과적으로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거나 각종 자원을 동원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수단으로 작용하였음
- 남북 대립 하의 냉전 체제하에서, 남한과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동원이나 정신 무장, 그리고 권위적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전전에 일본에서 발달한 여러 상징과 담론과 수단을 활용하였음

15) 일본이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던 1931년부터 1945년까지를 의미한다.

- 민간의 수많은 기획이 전쟁에 비유되었으며 끊임없이 “위기”가 강조되었음
- 이러한 동원체제하에서 민족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끊임없이 강조되었음
  - 1960년대까지 일제의 “교육칙어”를 연상시키는 “우리의 다짐”이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교육헌장의 낭독과 암기,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기와 관련된 의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역사 교육이나 위인 숭배 등도 외세의 침략에 대한 항전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민족과 한국문화의 존재를 당연시하였고, 인권이나 평화나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한민족의 단결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었음

#### □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 속의 민족주의

- 1970년대의 경제성장의 결과, 어느 정도 민족적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1980년대에는 “우리 것”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상업주의와 강력히 결합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 한국적인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갈망은 여행과 건강, 한의학 붐 등으로 이어지는 상업주의적 성공으로 나타나기도 했음
  - 이익의 추구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가리지 않을 것이지만 1980년대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하면서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음
- 1980년대까지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저항운동 세력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던 정권의 민족주의적 대응이 나타남
  - 관청, 군부대의 자판기에서 커피를 배제하고 국산차를 마시게 한 다거나, 공무원들이 외국제 넥타이를 매지 못하는 등은 극단적 사례
- 민족에 대한 강조는 집권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음. 민주화 운동 세력 역시 민족을 강조하였으며 집권세력과 저항세력은 서로의 정당성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에서 찾기도

했지만 서로 상대방을 외세의 앞잡이나 외국 사조에 물든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족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쟁을 벌이기도 했음

- 때로는 민주적 절차나 개인의 자유, 인권 등의 개념이 서구적인 것, 즉 외래적인 것으로 규정되면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나 긴급한 필요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되기도 했음

○올림픽의 개최는 이론상으로는 세계주의적 경향을 강화해야 할 것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주로 민족과 국가의 위신과 긍지를 높이는 형태로 나타났음. 문민정부 하에서는 세계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여전히 국민국가를 매개로 하는 것이었음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최고조에 달했던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 또한 민족주의의 범위와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특히 외환위기의 경험은 국가와 민족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물산장려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을 연상케 하는 금 모으기 운동 등 각종 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한국사회에서 방어적 민족주의적 경향을 적어도 담론의 레벨에서 다시금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음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이 성행한 것 또한 단일민족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혐의가 있음

-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단일민족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타문화의 여러 요소를 흡수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적응능력을 가진 국민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2. 인식의 전환을 위한 민족주의의 재검토

### □ 왜 재검토되어야 하는가?

- 혈통주의적 의미를 갖는 단군자손론은 식민지 시대에 단일민족론의 형식으로 등장하여 해방 이후의 분단 과정에서 또한 한국동란과 이후의 국가적 동원 체계의 형성과 운용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
- 국가와 민족의 범위 일치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정권유지와 자원동원에 매우 유용한 환경과 도구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들도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 담론의 범위 내에서 보다 선명한 민족주의를 위한 경쟁을 하였던 것임
- 현대 한국 사회에서 누가 더 민족주의적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록 민족주의의 공과(功過)에 논의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한민족이나 한국문화의 존재 자체나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전제에 대한 진지한 의문 제기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

### □ 문화적 우월의식과 차별문제

- 단군의 자손이라는 표현 때문에 현대 한국사회가 폐쇄적 혈연집단으로서의 민족을 강조하며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차별의식은 순혈주의적 단일민족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음
  - 차별의식은 우리가 중국에 못지않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화이관적 문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월감은 문명화의 시기와 정도를 근거로 하고 있었음
  - 조선시대의 여진인이나 왜인에 대한 태도 가운데 화(華)와 이(夷)의 구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혈통이라기보다는 문명화였음
-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거주 경험이 없고 한국이 전통적으로 “순혈주의적” 또는 “순혈주의적 가부장주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임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중국인, 여진인, 왜인 등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음
- 혈연집단으로서의 민족이라는 의식보다는 당사자의 가계와 혈통이 중시되었으며 민족의 경계보다는 신분의 귀천과 학식의 유무가 더욱 중요하였음
-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논의의 저변에는, 혈통에 대한 강조가 전근대적,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음
- 혈통에 의한 구분은 비과학적이고 나쁜 것이지만 문화에 의한 구분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는 전제 또한 심각한 문제임
- 이러한 전제는 자칫 문명의 우월에 입각한 민족주의나 국민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민족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더구나 문명론적 우월성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은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차별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며 그 폐해 또한 더 심각할 수도 있음

#### □ 보편적 가치보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특수주의적 강조

-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강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국권의 상실과 식민지 체험이었음
- 외국의 호의와 명분 논의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승리를 거둔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인 동시에 기묘하게도 모방과 찬탄의 대상이기도 하였음
- 동양평화론에 공감하면서 일본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물론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분노하였던 사람들조차도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평화의 관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증오하면서도 단기간에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 내내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유학하였는데<sup>16)</sup>, 이들이 일본에서 보고 익힌 것은 서구의 문명만이 아니라 서구 문명을 일본적으로 변형시키고 적용하는 방식이었음
  -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새로이 정의하기 위해 전통을 창출(invention of tradition)하고 문화 민족주의적 노력을 통하여 서구에 대항하는 민족문화 담론을 만들어 낸 것(Meiji ideology의 형성)은 식민지의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음
- 그 결과 일본보다 더욱 강력한 정신무장과 애국심의 함양을 위해 한민족 우월주의, 한국문화예찬론 등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고쿠가쿠(國學)나 문화민족주의적 노력들의 한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음
  - 더구나 일본의 문화민족주의는 단선진화론과 서구우월주의가 지배하던 당시에 비서구사회의 지식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특수성을 넘어 적어도 후진지역에서는 부분적 보편성을 획득한 것 또한 사실이었음
- 이러한 일본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변형을 통한 적극적 수용과 모방 이외에, 일본제국이 만주사변 이후 주로 서구를 대상으로 발전시킨 외세배격의 논리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독립운동 기간 중의 몇 차례의 쓰라린 좌절 경험, 예를 들면 전승국의 민족자결주의에 기대를 걸었던 3·1 운동의 좌절이나 연해주 지역에서의 경험 등은 보편적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외세와의 협력보다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경향을 강화하기도 하였음

16) 당시, 많은 중국의 청년들도 서구보다는 일본 유학을 선택하였는데, 그 역시 단지 서구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서구를 어떻게 빨리 잘 배우면서 스스로를 변혁시킬 것인가를 일본에서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의 상당수도 중국의 청년들과 유사한 이유로 일본을 유학 대상국으로 선택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일본에 이기기 위하여 일본 것을 배우고 이용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 어떠한 고통과 모욕도 감내한다”거나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망설일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 제3장

# 문화다양성 협약과 해외사례

### I 문화다양성 선언 및 협약 분석

1.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개념
2. 문화다양성 협약의 역사
3.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목적
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관리인과 수혜자
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및 문화다양성 협약의 문제점

### II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정책 국가보고서 분석

1. 독일 국가보고서
2. 캐나다 국가보고서
3. 스웨덴 국가보고서

### III 문화다양성 정책 해외사례 분석

- |        |       |        |
|--------|-------|--------|
| 1. 일본  | 2. 영국 | 3. 스웨덴 |
| 4. 프랑스 | 5. 호주 | 6. 미국  |

## I 문화다양성 선언 및 협약 분석

### 1.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개념

####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네 가지 핵심적 영역

- 문화 및 자연 유산(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문화재(movable cultural property)
-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당대의 창의성(contemporary creativity)

####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05년]

- 문화다양성 협약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2001년]의 특정한 부분, 즉 8조에서 11조까지를 다루고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의 세 가지 주요 이슈
  - 아이덴티티와 문화상품(cultural goods) 및 문화용역(services)과의 관계로서, 그 가치와 의미는 경제적 재화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됨
  - 당사국들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가짐
  -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 문화다양성 협약은 법적 구속성을 가진 국제적 협약으로서, 전 세계의 예술가, 문화전문가, 실천가,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문화적 재화, 용역, 활동을 창조하고 생산하고 보급하고 향유할 것을 보장함
- 문화적 표현이란 활동, 재화 및 용역에 의해 전달되며, 이들은 경제적 및 문화적 결과를 가짐
-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문화적 표현은 순수한 교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2. 문화다양성 협약의 역사

### □ 문화다양성 협약의 등장 배경

- 1980년대 이래 점점 시장의 절대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무역협정의 범람이 문화산업에 대한 위협을 극적으로 증가시켰음
- 문화정책을 집행하려는 권리를 유지하려던 국가들은 주변화 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협을 감수해야 했음

### □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채택됨
- 5월 21일은 대화와 발전을 위해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이 선포되었음

###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2005년 10월 20일에 채택되었음

### 3.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 □ 현재의 세계

- 선언은 서문에서 현재의 세계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세계화 과정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자, 문화 및 문명 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 하고 있다고 봄

#### □ 문화의 개념

- 선언에 나타난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집단의 생활양식이라는 근대 인류학의 문화 개념을 따르고 있음
  - 선언은 서문에서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독특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네 가지 단계를 설정하고 있음. 즉 문화다양성에 대한 담론 및 유네스코 문서들을 검토한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이슈 : 검토 및 전략, 1946-2000>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진화하면서, 발전의 개념과 민주주의 가치까지 포함하게 되었다고 함

#### <표1> 유네스코 문화개념의 4단계

1단계	문화를 예술생산의 관점에서 다루고, 국민국가를 단일한 실체로 간주함
2단계	문화의 개념이 아이덴티티 그 자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확장됨
3단계	문화의 개념이 발전과 연계되기 시작하였음
4단계	가장 최근의 단계로, 문화를 민주주의와 연계시켜,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모든 관련 문제들과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음

- 선언에 나타난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민주주의와 창조성을 강조하는 문화다원주의의 개념에 잘 나타남

-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체제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문화다원주의는 문화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다원주의로)

#### 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목적

##### □ 주요 목적

- 협약의 주목적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임
  - 협약은 문화적 창의성이 인류 모두에게 있으며, 창의적 다양성은 경제적 이득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및 사회적 편익을 창출함
  - 협약은 문화적 표현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이를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 협약의 주목적은 자국의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임
  - 협약은 개발도상국가들에 강한 초점을 두고, 문화적 활동, 재화 및 용역에 의해 전승되는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배포/보급, 접근 그리고 향유를 강화하는 것임
  - 협약은 국제적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국가들에게 문화적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문화부문의 모든 측면을 협상대상으로 하라는 증대되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것임
  - 협약은 문화적 재화, 용역, 활동이 아이덴티티와 가치와 의미의 운반 수단이라는 독특한 본질을 인정함
  - 협약은 문화적 재화, 용역, 활동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교역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품이나 소비재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함
  - 협약은 문화산업과 문화적 상호성(interculturality)을 정의하고 있음
- 문화적 다양성의 대화와 창의성의 증진은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요소임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개인과 사회의 풍요한 자산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과 유지가 현재 및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 라는 사실을 인식함
- 협약은 전문에서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간의 상호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고 적고 있음
- 협약은 경제성장과 문화적 수용의 강화에 기여함

## □ 추가적인 목적

- 협약은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 국가들이 문화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함
  - 협약은 문화적 창의성이 인류 모두에게 있으며, 창의적 다양성은 경제적 이득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및 사회적 편익을 창출함
- 협약은 국제적 문화협력의 새로운 틀을 정의함
  - 협약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문화들이 번영하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함
  - 당사국들은 세계의 다른 문화들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해야 함
- 협약에는 보호조치도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권장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기금(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의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의 감소를 위한 협력을 지원하려 노력함

## 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관리인과 수혜자

### □ 관리인

- 모든 문화적 행위자들은 협약의 관리인으로서 참여해야 함
  - 국가 및 협약이 인정한 기구, 시민 행위자 및 시민사회, 그리고 문화 기업과 문화산업 등의 민간행위자, 특히 개발도상국, 소수자, 토착민들이 관리인으로서 참여해야 함
  - 시민사회가 협약의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보장함

### □ 수혜자

- 협약의 수혜자들은 무한함
  - 협약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줌
  - 왜냐하면, 참여하고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킬 능력은 모든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임
  - 문화적 표현의 창조자들과 이들의 작품을 소중히 기리는 공동체를 인정함
- 협약의 중요한 수혜자는 문화적 표현의 예술가와 실천가임
  - 협약은 여성, 토착민, 소수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와 실천가처럼 몇 명만으로 이루어진 특정한 집단도 중요한 수혜자로 열거하고 있음



## 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및 문화다양성 협약의 문제점

### □ 문화 간 다양성, 특히 국민국가 문화 간 다양성에 주목하여,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는 깊은 관심이 없음

-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특정 사회나 국민국가의 국경 ‘내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와, 국민국가들, 사회들, 그리고 문화들 ‘사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 문화의 주체를 집단(국민국가)으로 상정하여 개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개인은 여러 다양한 문화적 전통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전통들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는 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 문화의 총체성에 바탕을 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축소되면서,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춤

- 문화산업은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산업임
- 문화다양성 협약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양식”으로 정의하였음
  - “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제4조 제1항)

## II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정책 국가보고서 분석

### 1. 독일 국가보고서

#### 1) 독일의 문화정책

□ 독일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체 등의 문화정책의 기본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독일의 문화부흥체계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 독일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가 문화적 자주권을 가짐

○주 정부가 문화정책을 주관함

○주 정부는 지방자치체와 협력하여 예술과 문화를 지원함

○연방정부는 연방법이 정한 몇 분야 및 독일을 대표하는 일을 책임짐

○연방정부는 문화 및 문화적 표현에 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함

□ 문화정책의 목적은 예술발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시민에게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특히 소외계층과 문화의 국제교류에 초점을 둠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체 등은 문화교육을 우선순위로 정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문화와 학교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문화배낭(Culture Backpack NRW)

: 주정부와 지방자치체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계획

- 베를린 문화교육기금 프로젝트

: 상호문화간 만남과 파트너십에 초점을 둠

○연방정부는 연방법이 정한 몇 분야 및 독일을 대표하는 일을 책임짐

○연방정부는 문화 및 문화적 표현에 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함

□ 독일 도시연합(Deutscher Städtetag)은 지방자치체가 지방의 문화인프라의 발전을 도모하여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함

○작센주의 문화환경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문화, 예술, 문화교육 등의 증진법(안)

○작센안할트(Saxony-Anhalt) 주의 문화회의(Kulturkonvent)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페이네(Peine) 시의 “미래의 개념: 문화”라는 계획

## 2) 문화다양성 정책

□ 소수자 문화의 보호와 증진은 유럽연합의 ‘소수자 보호 협약’ 및 ‘지방 및 소수 언어 헌장’에 기초함

○독일의 소수자 :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주의 소르비아 사람(Sorbian people),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와 니더작센 주의 덴마크 사람과 프리지아어 사용자, 여러 주에 걸쳐 사는 집시족

○독일의 소수자들은 분명하게 독일문화에 기여하고 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언어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음

○북부독일 8개 주에서 사용되는 방언인 저지(低地) 독일어(Low German)도 보호하고 있음

□ 문화를 증진시키는 일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로 여김

○예술, 문화, 미디어에 우호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음

○예술의 창조와 배포에서부터 문화참여와 문화에 대한 인식증대에까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음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 문화정책(특히 주정부의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는 대중 지원 프로그램과 경쟁체제의 양립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임

- 각 부처간 긴밀한 협동을 통해 관계자들이 협약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은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매우 소중한 기초를 제공함

□ 2007년 문화 및 예술 증진을 위한 예산은 85억 유로(125억 미국달러)로, 전체 예산의 1.67%를 차지함

- 문화 및 예술 증진을 위한 예산의 44.4%는 지방자치체의 예산이며, 주정부의 예산은 43%, 연방정부의 예산은 12.6%를 차지함
- 공익법인과 민간재단의 지원

□ 음악분야의 주요 문화다양성 정책

- 2006년부터 시작된 “크리올” 음악경연(creole Wettbewerb)
- 뉴뮤직네트워크, 2008-2011(Netzwerk Neue Musik, 2008-2011)
- 2007년부터 시작된 록/팝송/재즈 음악을 위한 계획(Initiative Musik)

□ 독일은 번역이 매우 활발함

- 남유럽과 동유럽의 저작 및 문학작품의 네트워크(TRANSLUKI)  
: 번역을 통한 유럽 내의 정보교환 활성화

□ 영화분야의 주요 문화다양성 정책

- 2007년 이래 매년 6,000만 유로(8,850만 미국달러)를 독일연방영화기금으로 조성함

- 독일영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2011년 이래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디지털화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03년부터 베를린영화제에 텔런트 캠퍼스를 개최하여, 전도가 유망한 젊은 영화제작자와 영화감독을 위한 포럼을 개최함

#### □ 문화산업 및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 분야

- 문화산업 및 창의산업은 독일의 신성장 산업임
- 문화산업 및 창의산업 분야 : 244,000개의 업체, 100만 명 정도의 노동력, 총매출액 1,370 억 유로(1,800 억 미국달러)
- 문화산업 및 창의산업은 독일의 문화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문화경제의 11개 시장(광고시장, 방송산업, 소프트웨어 및 게임산업, 디자인산업, 공연예술시장, 건축시장, 도서시장, 영화산업, 미술시장, 언론 시장, 음악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여러 개의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산업 및 창의산업 발전계획
  - 독일연방영화기금
  - 음악발전계획
  - 독일컴퓨터게임상

### 3)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문화와 발전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2010-2013년 기간 위원회의 핵심 분야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과 ‘지속가능한 경제 안에서의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로 정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08-2009년에 ‘문화와 발전’ 이라는 분야를 설정함

- 2008년부터 시작된 ‘문화와 발전’ 이라는 틀 속에서 독일문화원(괴테

인슈티튜트)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미디어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교육과 자문을 하고 있음

○문화통합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네 번째 축

#### 4) 국제교류와 상호문화간 협동

##### □ 독일에 살고 있는 독일 출신과 타문화 출신의 예술가들이 상호문화간 협동의 다리 역할을 함

○수많은 비정부기관, 재단, 네트워크, 예술단체 등이 독일과 해외에서 상호문화간 협동을 주도하고 있음

##### □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문학, 영화 분야의 국제교류는 독일의 문화교류 정책과 교육 정책의 중요 부분임

○2010년 문화교류 정책과 교육정책 연방예산 : 15억 1,300만 유로 (20억 미국달러)

○2006년 이래 독일문화원(괴테 인슈티튜트)과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가 운영하는 아랍지역의 출판업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됨

○2003년부터 ‘독일의 물결’ (Deutsche Welle)이라는 온라인 대화 시스템으로 아랍지역과 교류를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페르시아어로 온라인 포럼을 시작함

○전 세계 2억 4천만 명이 인공위성과 인터넷으로 ‘독일의 물결’에 접속하고 있음

○베를린영화제의 세계영화기금(World Cinema Fund/WCF)은 장편영화의 공동제작과 배급을 통해 영화신흥국들의 예술가들이 영화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있음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의 초청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가 및 신흥국가의 출판업자들이 출판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있음

## 2. 캐나다 국가보고서

### 1) 캐나다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 캐나다 정부의 상위 목적 중의 하나는 “활기찬 캐나다 문화와 유산” (Vibrant Canadian culture and heritage)임

□ 캐나다는 자국 영토내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과 방안에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이를 위한 방안들은 정책, 법, 규정, 보조금 제도, 세금공제 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적 표현의 모든 단계(창조, 제작, 배포, 보급, 참여)를 지원함

□ 캐나다 정부와 주정부 및 연방직할지정부는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의 훌륭한 계획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정부의 여러 층위의 조직들이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 예술위원회, 공공방송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

### 2) 주요 문화정책

□ 캐나다유산부(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의 두 가지 프로그램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프로그램

-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캐나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캐나다 문화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조건을 만드는 방안

- 2010~2011 회계연도 문화산업 프로그램 예산 : 약 3억 352만 캐나다 달러(약 3억 1,259만 미국 달러)
- 주요 기금으로는 캐나다 음악기금과 캐나다 도서기금이 있음

#### ○ 예술 프로그램

- 캐나다 시민들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예술적, 문화적 활동과 유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모든 캐나다 시민들이 예술 부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 예술의 지속가능성과 수월성을 증진시키는 방안
- 전문예술축제 지원, 예술과 유산 분야의 인프라 개선, 예술단체와 유산단체 지원, 예술과 유산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지원, 높은 수준의 전문예술교육 제공 등
- 2010~2011 회계연도 예술 프로그램 예산 : 약 1억 1,458만 캐나다 달러(약 1억 1,800만 미국 달러)
- 주요 기금으로는 캐나다 예술발표기금이 있음

### □ 퀘벡 정부의 문화정책

- ‘문화정책’ (1992년)의 목적은 퀘벡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창작의 발전을 도모하며, 모든 시민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
- 퀘벡 정부의 ‘국제정책’ (2006년)의 목적 중 하나는 퀘벡의 정체성과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것임
- 퀘벡 정부의 문화/통신/여성지위부(The Ministère de la Culture, des Communications et de la Condition féminine/MCCCF)가 문화정책(1992년)을 수행함
  - 주요 지원기구로는 퀘벡예술문학위원회와 퀘벡문화산업발전조합이 있음
  - 2010~2011 회계연도 문화/통신/여성지위부 예산 : 약 6억 5,920만 캐나다 달러(약 6억 7,810만 미국 달러)



### □ 주요 주정부 및 연방직할지정부의 문화정책

- 캐나다의 주정부 및 연방직할지정부는 각자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문화의 목적을 세움
- 방식으로는 문화정책, 전략계획, 공공기관에게 지시하는 것 등이 있음
- 앨버타(Alberta) 주의 “앨버타의 정신”이라는 이름의 문화정책(2008년 수립)
  - 앨버타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문화적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문화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높이기 위함
  - 앨버타의 문화전문가와 문화단체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함
  - 앨버타 문화산업의 발전, 지속가능성,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함
- 북서부 연방직할지(Northwest Territories)의 교육/문화/고용부의 “우리의 성공 기반”이라는 이름의 10개년 전략계획(2005년 수립)
  - “우리문화의 자부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 : 유산보호와 유산에 대한 지식, 예술진흥, 직할지 공식언어의 사용
- 캐나다의 주정부 및 연방직할지정부는 각자의 문화정책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행기관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음

### 3) 문화다양성 정책

#### □ 전국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증가와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중임

- 96%의 가정이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roadband)에 가입되어 있고, 인터넷을 월평균 59시간 사용하며, 약 48%의 국민이 페이스북에 가입되어 있음
- 정보기술(온라인 토론, 인터넷 생방송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함
- 주정부 및 연방직할지정부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토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 □ 캐나다 정부와 퀘벡정부는 문화다양성 연합(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을 구성함

- 문화다양성 연합은 문화부문의 주요 전문단체들의 연합으로, 유네스코 협약에서 제시한 이슈에 관한 국가적인 포럼임
- 문화다양성 연합은 문화부문(출판, 시청각 및 미디어,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의 2,200개의 비영리기구 및 회사의 18만 명의 회원을 대표함
- 문화다양성 연합은 국내적으로나 해외에서나 유네스코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연합은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의 공식 언어인 불어, 영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뉴스레터는 아랍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있음

#### 4)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문화와 발전

#### □ 캐나다 정부는 문화적 표현의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많은 계획을 수행함

- 캐나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주기구(the Organization and American States)의 문화에 관한 미주간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미주 국가간 문화정책에 관한 대화를 주도함
  - 캐나다 정부는 2008년에 “미주를 점화하자”라는 청소년 예술정책 포럼을 주최하여, 몇 개국의 예술분야의 젊은 지도자들이 토론토시에 모여 청소년의 참여와 경제발전의 도구로서의 문화에 대해 논의함
- 캐나다 정부의 문화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국내의 사회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킴
  - 10세에서 24세까지의 선주민 청소년들이 도시적 환경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의 선주민 및 북부개발부(Department of Aboriginal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에서는

선주민 청소년을 위한 문화연대(Cultural Connections for Aboriginal Youth/CCAY) 프로그램을 수행

- 선주민 청소년을 위한 문화연대 프로그램은 선주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킴으로써, 활기찬 선주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
- 선주민 청소년을 위한 문화연대 프로그램은 63,000명의 선주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약 25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음

#### □ 퀘벡 주정부는 2011년 11월 ‘문화아젠다 21’ 을 채택함

- ‘문화아젠다 21’ 은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지름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원칙과 목표를 정함
- ‘문화아젠다 21’ 시행에 있어서의 주요 세 가지 요소
  - ‘문화’ 라는 틀: 문화가 모든 정책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함
  - 책임에 관한 선언문: 개인, 시민사회단체, 개인기업, 정부조직 등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퀘벡정부의 참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 문화의 역할을 인식시키는 국제적인 포럼에 참여함

#### □ 남서부에 있는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정부는 주정책의 핵심에 문화를 상징하는, ‘서스캐처원의 자부심’ (Pride of Saskatchewan)이라는 정책을 2010년에 채택함

- ‘서스캐처원의 자부심’ 은 문화, 상업, 공동체가 만나는 정책으로, 문화가 심장이며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
- 이 정책은 문화가 경제적 발전을 지속시키고, 자부심을 키우며, 삶의 질을 높이는 주정부의 주요정책의 중요 부분이 되도록 하는 계획임
- ‘서스캐처원의 자부심’ 정책의 주요 내용
  - 문화의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이득에 초점을 맞춘 장기 비전
  - 집단 활동의 원리
  - 예술적 수월성, 창의적 표현, 관리, 접근성, 참여, 공동체 역량, 상업

- 적 실행가능성 등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
- 발전이 드러나는 결과 산출

## 5) 국제교류와 상호문화간 협동

### □ 캐나다는 문화교류협정 및 상업적 합의를 통해 유네스코협약을 국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부간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1998년에 문화정책에 관한 국제적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INCP)의 연락사무소를 유치함
  - INCP는 72개국의 문화부 장관 및 관계 공무원들, 국제적인 시민사회 조직의 대표자들, 국제기구의 대표자들 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임
- 2008년 캐나다 정부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 관한 국제포럼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음
  - 국제포럼은 창조경제의 초석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 캐나다 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회담을 주도함

### □ 캐나다 정부는 퀘벡 정부와 함께 프랑스어권에서 유네스코 협정을 준수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음

- 프랑스어권 국가연합의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활동
- 프랑스어권 장관회의

### □ 문화전문가들 간의 국제교류

- 캐나다 정부는 문화전문가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업허가제도의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

- 캐나다예술위원회는 캐나다와 해외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음
- 캐나다유산부도 캐나다 예술가들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캐나다 음악기금과 캐나다 영화기금은 칸 영화제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최되는 미디어산업 컨퍼런스 및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South by Southwest) 등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행사에 예술가 및 제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문화협동 상호협정

- 유네스코협정을 비준한 이래, 캐나다 정부는 중국, 인도, 콜롬비아와 문화협동 상호협정을 맺음
  - 2010년에 인도와 맺은 문화협동에 관한 양해각서 : 상호간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공개행사를 상호 개최함
- 세계 여러 조직과 문화협동 상호협정을 맺어 시청각 자료를 공동제작하고 있음
  - 공동제작은 국내의 시청각산업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해외의 상대방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킴
  - 캐나다의 공동제작의 역사는 50년 가까이 되었는데, 1963년에 프랑스와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맺은 이래, 전 세계적으로 53개국과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맺음
  - 지금까지 800여 편의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였음
- 주정부 및 연방직할지정부 차원에서도 상호협정을 맺고 문화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동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 퀘벡의 국제적 문화교류

- 퀘벡정부는 외국 및 해외지역과 30여개의 문화관련 상호협정을 맺음

- 퀘벡예술문학위원회의 해외 예술인과 문학인을 초청하는 프로그램
- 퀘벡문화산업발전조합의 프랑수어권 영화발전을 위한 기금

### 3. 스웨덴 국가보고서

#### 1) 스웨덴의 문화정책

##### □ 2009년에 채택된 스웨덴 문화정책의 목적

- 문화는 표현의 자유에 바탕을 둔 역동적, 도전적, 독립적인 힘임
-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함
- 창의성, 다양성, 예술성은 사회발전의 구성요소임

#####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스웨덴 문화정책은 모든 사람이 문화를 경험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창의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함
- 스웨덴 문화정책은 질적 개선과 예술적 개선을 증진시켜야 함
- 스웨덴 문화정책은 보존되고 사용되며 개발되어야 하는 역동적인 문화 유산을 만들어야 함
- 스웨덴 문화정책은 문화부문에서 국제적, 상호문화적 교류와 협동을 증진시켜야 함
- 스웨덴 문화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권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스웨덴 문화정책의 세 가지 우선순위

- 문화적 표현과 예술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 스웨덴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

- 예술가와 창작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 2) 국제교류와 상호문화간 협동

### □ 스웨덴예술위원회(Swedish Arts Council)

- 정부산하기관으로 문화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스웨덴예술위원회가 문화 전반의 국제화를 증진시키는 일을 함
- 스웨덴예술위원회는 정부재원을 분배하고 표현의 자유 및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며,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함

### □ 국립세계문화박물관

-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은 국립민족지박물관, 지중해 및 근동 유물박물관, 스톡홀름 극동 유물박물관, 예테보리 세계문화박물관 등 4개의 박물관으로 구성됨
-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의 목적은 성 평등, 존경, 관용으로 특징되고, 긍정적인 힘인 다양성이 보호되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3) 문화다양성 정책

### □ 문화협동모델(Cultural Cooperation Model)

- 2011년부터 지방 문화활동가들에게 국고지원금을 배분하는 새로운 모델인 문화협동모델을 시행하고 있음
- 스웨덴예술위원회가 지방예술위원회를 통해 개인 문화활동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임

#### □ 2006 스웨덴 문화다양성의 해

- 문화다양성의 해를 선포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전통들 간에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종족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문화활동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의 해 조직위원회는 종족과 문화다양성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 있어서 성, 연령, 교육수준, 성적 취향, 기능성 등의 관점을 고려하였음

#### □ 소수자 정책과 성 평등 정책을 문화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음

- 《소수집단과 소수언어에 관한 법》(Act on National Minorities and Minority Languages)이 2010년 1월 1일에 발표되었음



### III 문화다양성 정책 해외사례 분석

#### 1. 일본

##### 1) 일본의 문화정책의 기본 개요

#### □ ‘문화정책’의 개념

- 예술·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 단, 인간(문화의 창조자)이 주체인 공공정책
- 협의로는 예술정책, 광의로는 문화인류학적 의미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언어정책·종교정책이 포함됨
  - 문화유산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유형의 문화
  -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획득한 모든 태도나 관습을 포함한 복잡한 체계와 같은 무형의 문화(사상·관습·신조·가치관)
- 일본의 경우, 문화경제학에서 발전된 개념으로서, 문화자본, 경제자본, 사회관계자본이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일반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 공공의 이익을 생산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결코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문화 활동에서도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에 있음

#### □ ‘문화정책’의 담당기관과 관할사항

- 문화청 : 예술정책·언어정책·종교정책
- 경제산업성(상무정보정책국 문화정보관련산업과) : 문화산업정책(콘텐츠 정책)
- 외무성 : 문화외교(홍보외교)
- 총무성 : 방송정책(NHK, NHK 교향악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지역

문화 진흥)

○궁내청 : 전통문화정책(아악 등의 계승)

□ 문화청(文化庁)의 문화정책 6분야와 주요 근거법 :

문화청이 대상으로 하는 ‘문화’는 “예술 및 국민오락,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 출판 및 저작권과 그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것들과 관련된 국민의 문화적 생활향상을 위한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고(구 문부성 설치법), 아래의 여섯 영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음

○예술문화 정책 :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문화재 정책 : 《문화재보호법》

○저작권 정책 : 《저작권법》 《베른조약》

○언어(국어) 정책 : 《문자·활자문화진흥법》

○종교정책 : 《종교법인법》

○다문화(아이누문화) 정책 : 《아이누문화진흥법》

## 2) 일본의 ‘문화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 ‘문화정책’ 이전의 일본의 문화진흥

○근대 이전에는 한반도를 거쳐, 중국 또는 서역에서 전해져 온 외래문화의 이입을 중시

○‘에도시대’에는 유교적 통치이념 하에서 예술문화에 냉담한 태도를 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민간)들에 의해 예술문화가 발전하였음

□ 문화를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근대 이후 즉 메이지유신 이후

- ‘문화정책’의 기본은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정체성의 형성=국민의 문화적 통합
- 서구와는 다른 일본적 특색이 만들어짐
  - 이 시기에는 당시의 서구세계와는 달리 예술문화의 활용을 거의 볼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은 외래문화 이입의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음
  - 서구의 선진국가들의 제도 중, 군사·산업·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미술과 음악도 산업이나 군사면에서의 요청이 강하였음

#### □ 최초로 ‘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타이쇼(大正)시대

- 대도시의 도시생활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백화점 등)의 활동에서 출발
  -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음악이나 미술, 연극, 무용 등의 예술문화를 활용하기 시작  
(예) 다카라즈카 가극(宝塚歌劇)이나 시세이도(資生堂)의 갤러리 탄생
  - 미술전이나 관현악 콘서트, 신극의 상연, 아사쿠사(浅草) 오페라 등이 활발해짐
- 정부의 정책은 ‘무책(無策)’에 가깝고, 민간 주도로 문화진흥활동이 활발해짐
  - 국가 주도의 미술전(관전[官展]이나 성전[省展])이나 ‘검열’ 및 ‘극장단속’과 같은 통제적인 정책은 실시함
- 예외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전개하던 짧은 시기가 있었음
  -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정부가 예술문화(특히 영화와 연극)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내부에서 ‘문화정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음
  - 영화는 전쟁을 위해 국민의 정신을 ‘충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
  - 적국이었던 영·미의 문화를 배제하고, 일본문화의 우월성을 강조

- 영화나 연극 등, 사람들에게 친숙한 예술문화를 통하여, ‘나라의 영광’, ‘국민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양성하고자 하였음

## □ 패전 후 20세기의 문화정책

- 전체적으로 예술문화의 진흥, 문화재보호, 문화시설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크게 4시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 • 제1기 : 1945년 패전 ~ 1950년대 말

예술문화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부성의 조직개혁: 사회교육국 설치, 동 국에 예술과 설치(1945년)</li> <li>-패전전의 문화통제로부터,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여를 극력 배제</li> <li>-문부성미술전람회 개최(新文展)</li> <li>-제국예술원을 일본예술원으로 전환</li> <li>-문화훈장제도와 문화공로자 제도의 신설(1951년)</li> <li>-1946년부터 예술제를 개최하고, 예술제상, 예술제 장려상 등의 표창 제도를 신설</li> </ul>
문화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재’개념을 도입</li> <li>-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재보호의 관리체제 강화</li> <li>-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li> </ul>
문화시설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박물관 창설(도쿄, 교토, 나라) : 궁내청소관 + 제실박물관 + 恩賜교토 박물관</li> <li>-1952년 국립근대미술관 창설, 1959년 국립서양미술관 창설</li> <li>-1952년 도쿄 국립문화재연구소, 1954년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li> </ul>

### • 제2기 : 1960년대 ~ 1970년대 전반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청의 창설: 문부성 내 문화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1968년)</li> <li>-지역문화정책 시행: 무대예술의 지방순회공연, 청소년예술극장(1967년), 이 동예 술제(1971), 어린이예술극장(1974) 설치</li> </ul>
예술문화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청에 ‘문화의 보급’이 정책영역으로 도입됨</li> <li>-문부성 사회교육단체조성금으로 민간예술단체 조성 시작(1961)</li> <li>-예술가재외연수제도 발족(1967년)</li> <li>-예술상의 영역 확대</li> </ul>
문화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무형문화재의 쇠미와 매장문 화재의 파괴가 일어남</li> </ul>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극장 설치(1966년)</li> </ul>

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예능의 보존·부흥, 전승자 양성의 거점이 될 제2국립극장 검토</li> <li>-교토 국립근대미술관 개관(1967년)</li> <li>-지방의 문화회관 등 공립문화시설에 대한 보조 개시(1967년)</li> <li>-역사민속자료관의 설립(1970년)</li> </ul>
------	--

### • 제3기 :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말

예술문화 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일무대예술교류사업(1986년), 우수무대예술공연장려사업(1987년), 예술활동특 별추진사업(1988년) 등의 신사업 실시</li> <li>-예술가 국내연수제도 실시(1977년)</li> <li>-문화청 보조사업으로 오페라연수소 설치(1976년)</li> <li>-표창사업의 다양화: 예술작품상(1985년), 어린이대상 애니메이션 영화제작 장려 금(1976년)의 실시</li> </ul>
문화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보호법 개정(1975년)</li> <li>-문화재보호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시책을 전개: 개발과 보호의 조화, 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의 촉진(문화의 시대, 지방의 시대), 관련 문화재의 포괄적 보호</li> </ul>
문화시설 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국제미술관의 설치(1977년)</li> <li>-제2국립극장: 설치장소, 공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종료</li> <li>-연예자료관(1979년), 노(能)악당 설치(1983년), 분라쿠(文楽)극장 설치(1984년)</li> </ul>
지역문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 교육위원회의 소관 명확화: 문화재 보호, 사회교육(생애교육), 예술문화 진흥(주로 감상 기회 제공)</li> <li>-자치단체 문화행정의 활성화: 행정의 문화화, 지방의 시대 등, 자치단체 수장 주 도형의 문화행정을 제창</li> <li>-오하라 마사히로 수상 ‘문화의 시대 연구 그룹’ 조직(1980년)</li> <li>-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1977년), 국민문화제(1986년) 실시</li> </ul>

○제3기 까지는 가치가 정해진 문화재를 보호하고, 공적을 세운 예술가를 표창하며, 가치가 정해진 문화를 보급(감상=문화의 소비촉진)하였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 • 제4기 : 1990년 이후

예술문화 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에 대한 관심의 고양</li> <li>-예술문화진흥기금의 창설(1990년)</li> <li>-사단법인 ‘기업메세나협의회’ 발족(1990년)</li> <li>-대형보조금 프로그램의 개시: ‘아트플랜21’→‘신세기아트플랜’→‘문화예술</li> </ul>
--------------	---

	창조플랜'
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 개정(1996년/1999년) -국가의 권한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로 위임 -세계유산조약에 가맹(1992년)
문화시설 의 정비	-신국립극장 개관(1997년) -국립극장 오키나와(2004), 큐슈국립박물관(2005년), 국립신미술관(2007년) 개관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독립행정법인화 -《극장·음악당 등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극장법](2012년)

## □ 1990년대 이후, ‘문화입국’의 실현을 지향

-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풍요로운 질 높은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함
- 마음이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문화를 모두 진흥시킬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창조입국과 문화입국의 실현이 불가결하다고 간주
- ‘문화입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 예술창조활동에 대한 지원 : 창조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정비
  - 미디어 예술의 진흥 : 미디어 예술 중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 소프트웨어, 인터넷 홈페이지,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가 포함되며, ‘이 새로운 예술들이 일본의 예술문화 전체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건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진흥을 도모함
  - 폭넓은 예술문화활동에 대한 조성 : 예술단체에 대해, 예술문화진흥기금에 의한 조성을 충실화함
  -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 : 메세나란 ‘예술·문화의 보호라는 의미로서, 특히 기업에 의한 예술·문화의 지원활동’ 이므로, 기업 등의 기부나 인재 및 물적인 지원, 문화적 사업의 실시 등의 지원을 전개함
  - 활자문화의 진흥과 보급 : 활자문화(주로 신문, 서적, 잡지 등)는 문화 자체의 진흥·보급에 큰 역할을 하므로, 이것을 발전시킴

##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심화

- 1980년대 이후, 지방의 시대 · 문화의 시대를 주장하게 되면서, 문화에 개성화의 방향이 한층 더 요구됨
-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문화적 중앙과 문화적 지방의 해소와 국내의 내적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음

## 3) 일본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요

### □ 2001년 UNESCO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세계선언》 채택 후부터 검토를 시작

- <문화심의회 문화정책부회>의 활동 개시
- <문화심의회 문화정책부회> 내에 <문화다양성에 관한 작업 부회>를 설치
  - 문화다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검토를 행함

### □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해석

- 민족, 지역 및 커뮤니티가 독자의 역사적 · 문화적 배경을 소유한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 또는 그와 같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상태
- 세계적인 시야 뿐 아니라, 국내의 민족, 지역 및 커뮤니티에 대한 문화 다양성의 의미로도 사용
- 문화예술은 창조성을 북돋아, 혁신을 자극하고, 21세기의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할 가능성을 가진 사회적 및 경제적인 활력의 원천
-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 촉진하는 것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

## □ 글로벌화와 문화다양성의 관계를 고려

- 서로 다른 문화간의 접점의 증가는, 문화간의 창조적인 상호관계를 촉진시킬 것이라 기대
  - 문화재의 경우, 세계유산조약에 의해 세계적인 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문화에 의해 가치관이 다른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즉 다원적인 가치관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의 의식이 국제 사회에 생겨남
- 국경을 넘어 문화 콘텐츠가 유통되는 중에, 정보의 공유화가 진척되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
- 언어의 급속한 소멸 및 제품, 법규범, 사회구조나 라이프스타일의 획일화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어, 문화다양성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
- 국민경제가 세계시장 안에 휩쓸려가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문화산업이 도상국의 시장에 침투하여, 각 지역의 역사나 문화의 기반 위에 발전해 온 고유의 문화가 손상되고, 지역문화의 창조성이나 정체성이 상실될 위험성을 우려
- 다만, 이 글로벌화에 의한 문제를 과도하게 의식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과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시함
- 문화교류를 통해 각국, 각 민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함으로써, 문화간·문명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정비하고, 그를 통해 국경이나 언어, 민족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 세계평화의 기초가 구축되는 것을 기대

## □ 문화와 경제와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을 고려

- 예술문화의 양면성



- 문화는 경제활동에 다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새로운 수요나 가치를 창출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함. 즉 경제력과 문화력은 자동차의 양 바퀴와 같은 것으로 간주
- 하지만, 문화는 인간의 생활이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단순한 경제적 가치와는 구별되어야 할 특수한 지위를 지니고 있음
- 그러므로, 문화의 문제는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그 기본적인 이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면과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자유무역과 문화다양성의 관계

-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이 진전되면, 사람들이 타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보다 증대된다는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의의가 있음
-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를 모두 자유무차별원칙에 위임하는 경우, 경쟁원리가 작용하게 되므로, 자칫하면 사람들이 향수할 수 있는 타문화의 범위를 좁히거나 문화다양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의 진전이, 서로 다른 문화적 표현의 공존을 보장하고, 문화다양성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 및 무역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문화 그 자체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

### 4) 문화다양성을 보호·촉진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방향

#### □ 앞으로의 일본의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 일본사회는 문화의 다양성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고 간주
  - 고래로부터 다종다양한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독자적 문화양식을 형성
  - 압도적인 권위나 배타적인 가치가 중심에 존재하지 않는 중공구조(中空構造)
  - 다양한 문화를 균형 있게 감싸고 있음
-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도모하면서 형성되어 온 일본문화에 대한 재확인

- 타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정신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정신과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문화적 지위를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문화면에서의 국제적 공헌을 적극적으로 전개
  - 타문화의 수용에 유의하면서,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독자적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매력 있는 문화를 보유한 나라로 인식을 확대시켜 감

## □ 분야별 정책

- 문화유산(유형문화재, 전통예능, 무형의 민속문화재, 기타 무형문화재)
  - 일본의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일본문화의 다양성을 유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적극적 공헌
  - 일본 국내의 인재육성과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발신 등의 충실
- 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기타 무대예술 등
  - 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각국 간의 마찰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
  - 일본의 문화적, 사회적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평가축을 확립하여, 국내의 인재육성이나 관련정보의 정비, 시장의 충실 등 환경정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
  - 아시아의 전통적 문화에 대한 관심 확산
- 미디어 예술(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코믹[만화], 게임소프트)
  - 2004년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성립 및 정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책정을 계기로 국가의 적절한 지원 개시
  - 우수한 미디어예술 작가들의 창작기획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예술에 대한 표창을 통해 인재를 육성
  - 미디어예술의 창조를 위한 연구개발, 젊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국제교류의 추진

-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적판 대책의 강화
- 해외 미디어 예술제 또는 해외영화제 참가 지원
- 아시아 국가들과 미디어예술 분야에서의 공동제작의 촉진
- ‘즐거운 문화를 창조하는 일본의 매력’의 발신

##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제규범의 검토에 대한 기본 입장

### ○문화다양성 조약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

- 문화다양성의 보호, 촉진을 위한 정책을 유네스코의 틀 안에서 검토
-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틀의 구축을 위한지
- 다른 국제 약속과 법적인 저촉이 없도록 하고,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의 국제적인 유통촉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
- 일본국민에게 바람직한 일본문화 및 인류전체에 바람직한 세계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 ○문화다양성 조약의 대상 범위, 타 조약과의 관계

- 원래 문화다양성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음향·영상서비스 등의 콘텐츠의 취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지만, 이것에 한정된 것은 아님
- 따라서, 대상범위는 선행하는 세계유산조약이나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인류 문화의 바람직한 모습을 이념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각국의 권리의무

- 각국은 기본적으로 자국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의 조치를 강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하지만 각국이 문화유통에 관해 규제조치를 강화하게 되면, 타문화를 접할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각국이 실행하는 문화정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국의 문화정책담당자들의 공동논의의 장을 제공할 필요
- 그를 통해,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화다양성을 보호·촉진하

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상호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필요

#### ○문화다양성을 보호·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 문화에는, 시장의 문제나 문화 자체가 지닌 외부성(시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를 전부 시장경제에 위탁하게 되면, 소수자의 기호가 무시당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보조금, 규제조치, 세제 공제 등의 공공정책이 불가결함
- 무대예술에 대해서는, 국내의 지정 및 등록을 추진함과 동시에, 조성 조치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미디어예술에 대해서는, 국내영화와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른바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외자의 시장잠입규제 등을 제안하는 국가도 있지만, 이러한 규제조치는 문화다양성의 장벽이 될 우려가 있음
- 각국이 인재육성, 자금조달, 세제 공제 등 환경정비를 할 필요가 있음

### □ 일본의 정책방향

#### ○문화다양성을 보호,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충실

- 일본인이 보유한 창조성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
- 문화수용 및 문화발신을 통한 일본의 존재감 제고
- 문화청의 예술문화활동에 대한 조성 계획의 충실
- 각 분야에서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체계를 만들고, 표창 실시, 국민이 예술에 접할 기회의 제공
- 국내외의 문화예술활동 상황 및 문화정책에 관한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공동제작활동의 촉진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해외의 예술가, 예술단체와의 국제공동제작활동은, 문화다양성 중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년 등을 활용하면서, 콘

텐츠에 관한 인재육성이나 공동제작 등을 추진하는 교류추진 메커니즘의 구축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협력에 대한 공헌

- 유네스코가 각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상국이 문화다양성을 보호, 촉진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개발능력을 지원
- 바람직한 국제협력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제안
-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2. 영국

### 1) 영국의 문화정책

□ 영국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는 2008~2011년을 위한 네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음

- 기회 : 보다 넓게 문화, 미디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탁월함 :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분야의 재능과 탁월함을 지원함
- 경제적 효과 : 부서가 담당하는 분야의 경제적인 효과를 실현함
- 올림픽 : 지속가능한 유산을 가지고 성공적이고 감동을 주는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함

### □ 잉글랜드의 문화정책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계획(2008-2011)을 2008년 9월에 수립
- 예술위원회 계획인 “모든 사람을 위한 위대한 예술”은 네 가지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음
  - 새롭고 흥미있는 방식으로 수요자들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
  - 시각예술의 공급 효율성 증대
  -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확대
  - 국가의 예술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2012 런던올림픽이 주는 기회의 실현
- 2010년 예술위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위대한 예술의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장기목표를 수립하였음

- 재능과 예술적 수월성을 번성시킴
- 예술분야의 리더십과 예술가 집단은 다양함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가치를 알고 즐김
-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가짐
- 예술분야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창조적임

#### □ 스코틀랜드의 문화정책

- 2004년 4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독립적인 문화위원회를 설립(Cultural Commission)
- 그 후,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와 스코틀랜드 영화협회를 합쳐서 <창조적인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라는 공공기관을 설립
- <창조적인 스코틀랜드>의 기능
  - 예술 활동과 그 밖의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탁월성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개발하는 일
  -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 감상, 향유를 증대시키는 일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 분야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
  - 예술과 문화의 가치(특히 국내적 가치 및 국제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일
  - 스코틀랜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공헌하는 예술 및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
  - 창조적인 기술의 적용에 초점을 둔 산업 및 상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

#### □ 웨일스의 문화정책

- 2002년 웨일스 의회는 10개년 문화전략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문화 부문을 포함시킴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
  -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의 접근도를 높임
  - 전문예술의 높은 수준 유지

- 웨일스의 독특한 문화를 적극 홍보하여 웨일스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임
- 웨일스 언어 사용의 증대
- 문화단체들이 유럽구조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웨일스 언어와 영어로 만든 연극의 개발
- 축제와 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에 대한 보조금 점점

## □ 북아일랜드의 문화정책

- 북아일랜드 문화예술여가부(The Department of Culture, Arts and Leisure/ DCAL)는 2008-2011년 전략을 수립
- 전략의 목표 : “문화, 예술, 여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과 자원을 공급하여, 북아일랜드의 문화자본을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것”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고급문화, 예술, 여가서비스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제공함
  - 문화, 예술, 여가 분야에 전략적인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제공함
  - 관련단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

## 2) 문화정책 관련기관

###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 예술, 스포츠, 복권, 관광, 도서관, 영국의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방송, 영화를 포함한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 음악산업, 패션디자인, 광고, 미술시장, 언론자유, 도박, 역사적 환경 등
- 창의산업은 활동의 기원이 개인적인 창의성, 기술, 재능에 있으며, 지적 재산을 통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말함
- 창의산업의 분야 :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비디오, 컴퓨터/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 라디오 등

#### □ 잉글랜드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NDPBs)

- 잉글랜드의 문화정책은 주로 공공기관이 실행함
- 공공기관의 분야 : 예술, 스포츠, 영화, 유산 등
-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예산의 95%를 공공기관에 배정함
- 공공기관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3년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에는 기관정책의 우선 순위, 주요 활동 및 결과를 적음
- 지방의 문화정책은 4개의 공공기관이 주도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 잉글랜드 유산위원회(English Heritage)
  - 정식명칭은 영국역사건물 및 기념물 위원회  
(The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
  -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 잉글랜드 스포츠위원회(Sports England)

#### □ 스코틀랜드 문화정책 관련기관

- 스코틀랜드의 문화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소관임
- 스코틀랜드의 문화/외교/법무장관(The Minister for Culture, External Affairs and the Constitution)과 문화외교관광청(Culture, External Affairs and Tourism /CEAT)이 예술, 영화, 창의산업, 문화유산, 게일어(Gaelic language), 관광, 방송에 관한 영국정부와의 연락 등을 관장함

#### □ 웨일스 문화정책 관련기관

- 스코틀랜드의 문화는 웨일스의회의 소관임
- 웨일스 의회의 문화/웨일스어/스포츠 위원장(the Assembly Minister for

Culture, Welsh Language and Sport)이 예술, 박물관, 아카이브와 도서관, 언어, 유산, 스포츠, 복권 등을 관장함

#### □ 북아일랜드 문화정책 관련기관

- 북아일랜드의 문화는 1999년에 설립된 북아일랜드 문화예술여가부(The Department of Culture, Arts and Leisure/DCAL)의 소관임
- 북아일랜드 문화예술여가부가 예술과 창의성,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와 여가, 내륙수로 및 내륙어업, 국립북아일랜드아카이브, 언어정책 등을 관장함

### 3) 문화다양성과 융합정책(inclusion policies)

#### □ 영국 인구의 구성

- 2001 영국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소수종족의 인구는 460만 명으로 전체(약 5,415만 명)의 7.9%에 해당됨
- 소수종족 인구의 50%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임
- 소수종족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캐리비안 흑인과 아프리카 흑인을 비롯해서 스스로를 흑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임
- 소수종족 인구의 15%는 혼혈인들인데, 혼혈인들의 3분의 1 가량은 백인과 캐리비안 흑인의 결합에서 태어난 자손임

#### □ 문화다양성 정책

- 인종관계 수정법 2000(Race Relations Amendment Act 2000)은 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정책과 실행의 측면에서 인종평등을 증진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는 국립 문화다양성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 문화다양성 코디네이터와 문화다양성 점검표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위원회 종사자 발전전략의 주요 부분은 “다양화하라”임
- 이에 따라 이 부문에 진입하려는 소수인종 청소년들의 진입장벽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 잉글랜드의 문화다양성 정책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인종평등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인종평등제도는 위원회 조직의 다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금을 받는 단체의 인종평등에도 기여하고 있음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흑인 및 소수인종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인 “데시벨” (Decibel)을 시행하고 있음
  - “데시벨” 프로그램 시행 첫해의 평가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안의 예술가들에 대한 지식이 늘었으며, 130개 단체의 80%가 “데시벨”의 결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 스코틀랜드의 문화다양성 정책

-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가시성, 능력배양, 주류화라는 세 가지 활동영역을 정해놓음
  -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와 스코틀랜드 영화협회를 합쳐서 설립한 <창조적인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가 이러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 북아일랜드의 문화다양성 정책

-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는 2006-2011 전략계획에 따라, 소수종족예술 전략을 개발함

-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는 불평등과 사회격리와 싸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4) 미디어 다원주의와 콘텐츠의 다양성

□ 영국 정부는 방송 프로그램이 연령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과 기호에 맞아야 한다고 믿음

□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2016년 12월 31일이 만기인 BBC 방송의 인가협정서에 따르면, BBC 방송의 여섯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시민권과 시민사회 : 뉴스와 현안을 통한 이해의 증진
- 교육과 학습 : 학습자료의 제공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임
- 창의성과 문화 : 시청자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영국의 문화생활의 풍부성을 높임
- 국가, 지역, 공동체의 대표성 : 문화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영국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공통의 경험을 제공함
- 세계와 영국을 연결시킴 : 국제적인 이슈를 알게 하고, 영국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소개함
- 디지털 영국 만들기 :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 5) 문화간 대화와 문화다양성

□ 문화간(intercultural)이란 단어는 종종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란 단어와 혼동을 일으키고 있음

- 다문화적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유산에 맞는 문화(들)를 향유하도록 사회가 격려하는 것을 말함

○다문화주의 자체는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만남을 증진시킬 필요는 없는 데 반해, 문화간 대화는 이를 촉진시킴

○문화간 대화를 증진시키려는 명시적인 영국의 정부정책은 없으나, 모든 주요 국가/지방의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보다 큰 틀에 문화간 대화에 관한 정책이 들어가 있음

□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면서 영국내의 문화다양성을 찬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영국문화에 대한 정의 : “영국문화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므로, 영국의 문화들(British cultures)이라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이란 다름을 찬양하고, 사람들 간의 다름은 인종보다 더 깊은 것이다.”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는 흑인, 소수자, 종족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북아일랜드에서는 2006년부터 “새로운 이미지의 마을만들기 프로그램”(Re-imaging Communities Programme)을 시행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무장단체의 벽화나 공격적인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지역공동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가 시민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을 보다 넓게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모든 사람을 융합하고 환영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돕는 것임
- 평등 및 인권위원회(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문화간 대화와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문화간 대화를 위한 많은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교류에 힘을 쏟고 있음

-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문화외교정책”은 문화부문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적 활동이 외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

#### □ 사회통합정책

- 영국정부의 내무성(Home Office) 산하의 공동체통합처(Community Cohesion Unit)
- 공동체통합처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사람들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동체
  -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비슷한 삶의 기회를 가지는 공동체
  - 일터와 학교, 그리고 이웃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간의 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공동체
- 영국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증진된 기회, 강화된 사회”라는 이름의 공동체 통합과 인종평등 전략을 개발하였음
- 이러한 전략을 위해 《평등법 2006》(Equality Act 2006)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고, 성, 인종, 장애, 성적 취향, 종교, 연령 등에 기반을 둔 차별철폐를 추구하는 것임
  - 이 법에 기초하여 <평등 및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EHRC)라는 공공기관이 설립되었음

### 3. 스웨덴

#### 1) 스웨덴의 문화정책

□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첫째, 스웨덴을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고, 둘째,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을 육성하며, 셋째, 의사결정의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요약됨

○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문화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배경 : 지방화, 글로벌화, 미디어 등

○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 문화적 산물, 문화적 영향이 크게 늘어났음

□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소규모, 민주적인, 현대 복지국가라는 국가의 이미지에 잘 나타남

○ 문화는 사회를 묶는 공적 선이며,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조건이며, 개인의 복지와 공공복지의 기본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에 대한 접근은 주거지, 사회경제적인 조건, 성, 연령, 출신생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향유되어야 함

□ 2009년에 채택된 스웨덴 국가문화정책의 목적

○ 문화는 표현의 자유에 기반을 둔, 역동적이며 도전적이고 독립적인 힘이어야 함

○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창의성, 다양성, 예술성은 사회의 발전을 나타냄

□ 스웨덴 문화정책의 방향

○ 문화정책은 문화적 표현, 문화교육에 대한 기회와 창의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함

- 문화의 질과 예술부흥을 증진시켜야 함
- 보존하고 사용하며 발전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증진시켜야 함
- 국제교류와 상호문화간 협동을 증진시켜야 함
-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권을 중요시해야 함

#### ☐ 스웨덴 문화정책의 세 가지 우선순위

- 문화적 표현과 예술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 스웨덴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
- 예술가와 창작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 2) 문화정책 관련기관

#### ☐ 스웨덴 의회(Riksdagen)

#### ☐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

- 예술
- 문화유산
- 미디어
- 종교
- 스포츠

#### ☐ 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 문화교육
- 예술교육



☐ 스웨덴 예술위원회(The Swedish Arts Council/Statens Kulturråd)

-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예술잡지, 공공도서관, 미술, 박물관, 전시회 등에 국고를 지원하는 업무
- 스웨덴 정부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
- 문화와 문화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지방문화정책에 관해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고, 국고재원을 지방에 분배하는 업무

☐ 국립유산위원회(The National Heritage Board/Riksantikvarieämbetet)

☐ 국립아카이브(The National Archives)

☐ 문화분석기구(The Government Agency for Cultural Analysis  
; Myndigheten för kulturanalys)

- 2011년에 설치됨
- 예술과 문화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정책연구 수행, 문화정책 평가 등

☐ 사미족 의회(The Sámi Parliament/Sametinget)

- 사미족 의회는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에 설치됨
- 사미족 의회는 스웨덴의 원주민인 사미족의 대의기구임
- 사미족 의회는 사미족 문화와 사미족 언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함

### 3) 문화다양성과 융합정책(inclusion policies)

#### □ 스웨덴 인구 구성

- 스웨덴의 원주민인 사미족은 약 20,000명 정도 있음
- 스웨덴 인구의 13%는 외국 출생자임
- 스웨덴 인구의 17%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생자임
- 외국 출생지의 대부분은 북유럽국가들이며, 핀란드 출생자가 가장 많음
- 그 밖의 외국 출생지로는 구 유고연방, 이란, 이라크, 시리아, 칠레, 소말리아 등임
- 메소포타미아 북부 티그리스강 유역지방인 아시리아 사람들(Assyrian)이 약 12만 명 살고 있음

#### □ 문화공동체

- 아시리아 사람들이 스웨덴에서 가장 큰 문화공동체를 이루고 있음
- 이민집단 대부분은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를 결성함
  - 2008년에 무슬림연구협회 이븐 루슈드(Muslim Study Association Ibn Rushd)는 정부에 의해 연구협회의 지위를 획득하여, 성인교육과 문화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음

#### □ 문화다양성 정책

- 아직까지는 스웨덴 내의 소수집단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문화정책이 별로 없으나, 문화간 대화는 국가 문화정책의 목표로 되어있음
- 2005년 스웨덴예술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관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공공문화단체들은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은 문화간 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임

-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은 국립민족지박물관, 지중해 및 근동 유물박물관, 스톡홀름 극동 유물박물관, 예테보리 세계문화박물관 등 4개의 박물관으로 구성됨
  - 정부기구로서의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은 “역사박물관과 민족지박물관의 소장품을 대륙간 이주와 다문화사회 뿐만 아니라 전지구화 과정에 적응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립세계박물관의 역할은 “다른 사람/문화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박물관이) 감성적이며 지적인 만남의 장”이 되는 것임
  -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의 목적은 성 평등, 존경, 관용으로 특징되고, 긍정적인 힘인 다양성이 보호되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최근 이민집단의 통합정책으로서 문화단체를 지원하는 것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 정책의 큰 변화는 없음

## □ 사회통합 정책

-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을 “차별을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없애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가 확보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통합적인 사회란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서로 도와주는 사회”로 정의하였음
- 스웨덴 문화정책의 목표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많은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양질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임
- 따라서 참여와 사회통합이 스웨덴 문화정책의 핵심임
- 통합정책의 목적은
  - 종족/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 동등한 책임감,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 종족/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상호존중 속에서의 사회발전

- 종족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정책의 출발점이 됨
  - 문화인종주의나 민족차별을 없애고 스웨덴 사회의 분리주의에 대해 깊게 고심하는 것임
- 통합노력의 핵심은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며, 남녀동등의 권리와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임

#### 4) 문화관련법의 현황

제정연도	문화관련법
1949	언론자유법
1960	문화 및 예술작품 저작권법
1966	방송법
1990	아카이브법
1988	유산기념법
1991	표현자유에 관한 기본법
1996	도서관법
2009	언어법

## 4. 프랑스

### 1) 프랑스 문화정책의 개요

#### □ 정부와 공공기관의 활동 비중이 큼

- 16세기 왕실의 후원으로 문화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시작된 이래 국가가 지식을 추진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함
- 대표적 사례로 Collège de France, 국립도서관, Comédie-Française, 루브르 박물관 등이 있음

#### □ 행정 조직과 예산 지원의 발전

- 이미 19세기에 Fine Arts Secretariat 설립, 1959년 7월 문화성 설립
- 법령과 규제 외에 문화에 대한 재정 지원
- 전문적인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 의해 집행

#### □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프랑스 헌법에서 보장

- 특히 프랑스에서는 문화가 전반적인 발전(사회경제적 발전 포함)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삶의 질과 모든 개인의 삶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인

### 2) 프랑스 문화정책의 목표와 원리

#### □ 목표

- 저명 작가로서 초대 문화성 장관에 취임한 앙드레 말로가 1959년 프랑스 문화성의 사명과 기본 목표를 기초
- 인류의 주요 작품, 그 가운데도 우선적으로 프랑스의 작품들을 최대한수의 프랑스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의 문화유산에 최대다수의 관객 확보
- 예술 정신 그리고 이를 풍요하게 만드는 예술 작품의 창작 지원
- 새로운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문화적 표현의 새로운 시청자에 접근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기본 목표는 불변
- 다만,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변화하는데, 1970년대에는 문화적 행동, 1980년대에는 문화적 발전, 1990년대에는 정부 부처 간의 파트너십, 2000년대에는 문화의 분권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원리

-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문화적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 추진
- 프랑스 국민이 공유하는 공동의 유산으로서의 문화적 예술적 전승을 보호, 유지, 보존, 발전, 추진, 보급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령의 뒷받침
- 문화적, 예술적 창의성을 보호, 촉진, 지원, 보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령의 뒷받침
- 흔히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문화적 산물들의 소멸, 집중, 표준화 등 특히 시장의 기능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정부 지원
- 정부는 교육 일반에 대한 책임 외에 예술과 문화 교육에도 책임. 학교 교육 외에도 특수 교습 기관이나 협회와 단체 등도 중요
- 규제, 직접 행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영역에서 정부의 정책 실현
-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 1960년대 이후 기초자치단체도 문화 정책을 발전시키는 노력.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을 규정하는 법률들의 제정
- 파트너십: 다양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 간의 협력. 다양한 방식과 전문도에 따른 계약 절차 추진

- 지방자치단체들 상호간의 협력 증대 가능성. 인구의 과소화 진전과 관련
- 문화유산 및 예술 교육 영역에서 특히 권한이양의 증대 가능성

### 3) 프랑스 문화정책의 특기 사항

#### □ 문화 개념의 정의

- 매우 폭넓은 개념을 사용
- 프랑스의 작품을 특히 강조는 하지만 인류 전체의 주요 작품에 대한 최대 다수의 접근을 보장하려 시도
- 특정 문화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려하기보다는 창작 촉진, 문화다양성의 증진, 고급예술과 함께 새로 등장하는 문화적 표현 분야에서 창작활동의 지원 등을 목표로 설정

#### □ 문화정책의 분권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 프랑스 문화 정책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다는 점
- 박물관, 지방 극장, 도서관, 음악학교 등의 소유자이면서 문화에 대한 정부의 기금을 주로 지원
- 문화성의 지원으로 자체적으로 문화정책을 수립. 1982년, 1983년, 1992년의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규정한 법률에서 요구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 지역의 문화활동에 참여

#### □ 국제문화협력

- 외무성과 문화성이 담당
- 프랑스 문화의 해외 보급은 프랑스 외교 정책의 가장 오래된 부분의 하나이며, 외무성이 주로 담당. 프랑스 언어, 교육, 학술 교류, 과학 및 기술 협력, 예술과 도서의 교류와 프랑스 영화와 라디오와 TV의 보급
- 각국 소재 대사관과 영사관의 문화과, 문화원 및 문화센터(150여개),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소(20-30개), 알리앙스 프랑세즈(1천여개)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

- 프랑스문화산업의 수출은 외무성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들을 통해 주로 문화성이 담당. 영화는 Unifrance, 도서는 France Edition, 음악 등은 Bureau export de la musique française와 Culture France 등

#### 4) 프랑스 문화정책의 변화

제1기	<b>1959-69 (앙드레 말로 장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문화성은 앙드레 말로가 기초한 사명과 목표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호, 현대적 창작, 배포, 교육, 문화산업의 행정과 규제, 이관 등 담당 등을 담당.</li> <li>-모든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활동에의 참가를 촉진, 특히 연극, 음악, 문화유산 부문 강조.</li> <li>-프랑스의 각 지역에 예술센터(문화의 집, Maison de la Culture)를 설립하여 현대 예술 창작을 촉진하고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li> <li>-지방분권을 위해 지역 문화청 3곳 설립</li> </ul>
제2기	<b>1971-73 (자크 뒤아멜 Jacques Duhamel 장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문화 기관들(TV, 영화산업, 연극단 등)과 파트너십 계약 절차를 마련.</li> <li>-다른 부처와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재정지원하기 위한 문화간여기금(FIC) 설립.</li> <li>-시각예술의 경우 1% 시스템(공공건물 신축비의 1%를 예술에 사용)을 모든 기존 공공건물에 확대</li> </ul>
제3기	<b>1973-8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 예술가들과 현대 예술의 돌파구를 위해 지방자치체들과 일련의 문화발전협약을 체결</li> <li>-퐁피두 센터 개관(1977)</li> <li>-박물관재정법 통과(1978)</li> <li>-국민문화유산의 해 선포(1980)</li> </ul>
제4기	<b>1981-93 Jack Lang 장관 재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성의 현대화 추진 및 현대사회에의 참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지원 예산의 확대</li> <li>• 새로운 예술 형식 등 문화성의 활동 범위 확대</li> <li>• 문화와 경제계의 통합</li> <li>•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발전</li> </ul> <p>-미테랑 대통령의 지속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건축 사업 (Arche de la Défense, the Bastille Opera House, the Grand Louvre, the National Library… 등) 승인</li> <li>• 문화성 예산 증가. 1981년 26억 프랑, 1982년에 2배로 증액, 이후 계속 증가하여 국가예산 1% 달성. 1993년 138억 프랑 수준으로</li> </ul> <p>-지방분권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청(DRAC) 네트워크 완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li> <li>• 주요 교육훈련기관의 신설 또는 부활</li> <li>• 문화부문의 일자리 창출(12년간 8천개 이상)</li> </ul> <p>-학교의 예술교육의 현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예술 분과 학문(연극, 영화, 미술사 등) 수업</li> <li>• 아동들의 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아트 프로젝트, 학생들의 단체 영화관람, 문화유산 프로젝트 등 일련의 계획들 도입</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의 변화 및 국내 문화 활동의 증가의 영향으로 출판, 음반, 영화, 시청각 등 문화산업에 대한 강조를 통해 시장 규제를 시도(영화 산업 지원 제도, 도서 가격 규제, 프랑스어 음악에 대한 라디오방송 쿼터 등)</li> <li>•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1994)</li> <li>• 소위 “문제” 지역에 대한 일련의 혁신 조치들 도입</li> <li>• 문화가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조치에 포함됨</li> </ul>
제5기	<b>1997-2002</b>
	<p>-문화성에서 문화유산의 발전, 공연예술, 신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문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p> <p>-문화다양성,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개혁 등 강조</p> <p>-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프랑스에서 양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규제 기능 강화를 시도</p>

재6기	2000년대 이후
	-장기적 문화정책 입안 의지 표명. -신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 5) 현안과 쟁점

☐ 권한이양과 지방분권화의 지속적 추진: 2003년 이후 헌법에 규정

☐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특히 디지털화 관련

☐ 임시고용 공연자들의 문제.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하여 논란

☐ 예술교육 강화

○특히 학교에서의 예술과 문화 관련 5개년 계획.

○문화성의 감독 하에서 공립학교의 자율과 책임의 증대. 청소년 및 장애인 관객에 초점을 둔 역동적인 정책 수립

☐ 문화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연계 문제

○특히 과거의 풍부한 문화유산, 공연예술, 현대 창작물 들을 어떻게 보다 많은 프랑스국민, 유럽인, 그리고 전 인류에게 제공할 것인가

☐ 프랑스 영토 내의 문화적 소수자의 존재 인정 문제

○프랑스의 헌법은 평등을 보장

○프랑스는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크지만 소수자는 프랑스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음. 출신, 문화, 신앙, 언어, 민족성에 따른 특정 집단에게 프랑스법률은 아무런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글로벌화의 진전 속에서 문화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

- 이민자의 수적 증가는 안정적이지만 이민의 내용 변화로 여러 다양한 문제들 등장

#### □ 언어 문제와 언어 정책

- 프랑스어가 유일한 공식적 언어. 다만 현실적으로는 프랑스 내의 지역 언어들 및 이민자들의 언어 무시하기 어려움. 프랑스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 교육 문제

#### □ 미디어 다양성 및 콘텐츠 다양성 문제

- 민주적인 토론과 사회 통합, 시민권의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중요
-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독과점 현상으로 다양성의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
- 출판의 경우도 심각한 문제
- 문화의 아이덴티티 위기와 직결됨

#### □ 문화다양성의 문제

- 문화산업의 대량생산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문화적 창의성을 보존하고 보급할 것인가
- 단지 문화산업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 창조 활동과 관련
- 문화 간 대화 문제: 언어적 다양성과도 관련. 사회통합 문제

#### □ 문화 부문의 고용 문제

- 정규직 고용자가 아닌 고용자들의 보호 문제
- 단체협약과 협상 문제
- 사회보험 혜택 문제
- 실업보험 문제

#### □ 문화 정책과 양성평등 문제

- 문화 부문 전문직의 경우 여성 종사자 수의 불균형
- 일부 직업의 경우 성적 불균형 심각
- 동일한 부문에서도 음악의 경우처럼 특정 장르에 따라 불균형의 양태가 다름

## 5. 호주

### 1) 호주의 다민족, 다문화 현상

#### □ 2011년 호주 국가센서스 통계

- 총인구 2,200만명 중 26%(530만명)가 외국출생이며, 나아가 인구의 20%(410만명)의 부모 중 한명이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임
- 이민자가 도착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32%, 중국어 15%, 편잡+힌두어 9%, 아라비아어나 한국어나 타갈로그어나 베트남어 등이 2% 정도임
- 조상의 출신지별로는 영국, 아일랜드, 스코트랜드계가 합하여 55%로 많고, 이탈리아, 독일, 중국계가 각각 4%대이며, 인도와 그리스가 2%대임
-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 등 기독교가 61%, 불교 2.5%, 이슬람 2.2%, 힌두교 1.3%, 유대교 0.5%, 신을 믿지 않음 22.5%로 기독교가 주도적이거나 새로운 이민자에서 상대적으로 힌두교, 이슬람, 불교가 증가하고 있음

- 인구 8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고 중국어 3%, 이탈리아어, 아라비아어, 그리스어가 각각 1%대이나 비영어 사용자 과반수는 영어도 구사할 수 있음

### 2) 호주의 ‘다양성 정책’의 배경과 전개과정

#### □ 노동력 부족 등으로 1972년 백호주의를 포기한 후 아시아의 이민 증가

- 1978년 다문화사회로의 정책전환이 나타나 다민족 지원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던 백호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인종차별을 금지시키고 다양한 민족들을 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정책을 점차 강화해 옴

## □ 다양성 정책의 채택

- 다문화주의는 모든 호주인이 자신의 문화와 믿음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차별받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다양성이 꽃피고 생산적 다양성의 혜택을 누린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 다문화주의가 바로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음<sup>17)</sup>
- 호주의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능력을 경제적 경쟁력과 결부시키는 생산적 다양성 전략을 채택함
- 다문화정책이나 문화다양성정책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위원회나 정책은 다문화(multicultural)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기업이나 학교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성 정책 또는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호주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들의 노동력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를 적극 활용하고 적극 진출하기 위해, 1992년부터 다양성 정책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기 시작함
- 아시아 국가와 시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획득한 기술을 인정하여, 이들 이민자들이 호주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하도록 유도함
- 아시아의 다양한 이민자들을 포용하여 이들을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무역, 경제 진출, 상호관계를 강화하여 호주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이민자들은 2009~2010년도에 8억 8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켰으며, 10년 후에는 10~2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함

## □ 다양성 정책의 특성

- 문화다양성에서 나오는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확대하고 즐기며, 거주

17) Common Wealth of Australia, 2003

지 하모니를 이룩하고,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함

- 다양성을 기초로 혁신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생산적 다양성 정책은 국가, 지역, 교육, 기업에서 특히 다양한 민족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음
- 국가와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정책은 대체로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로도 논의되고 있음
- 기업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력을 긍정적으로 포용하면서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에서는 다문화와 다언어의 포용,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문화민감성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음

### 3) 호주의 문화다양성 정책

#### □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요

- 정책실행부처의 설치
  - 이민과 다문화부 Dep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그리고 사회통합부 Ministry of Social Inclusion 설치
  - 호주다문화위원회의 설치. 호주다문화위원회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자문과 권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인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인종차별금지연합’을 설립
- 정책의 내용들
  - 정부의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언어)출신들에 대한 동등접근권 강화
  - 다양한 민족의 문화유산, 전통, 예술, 축제를 지원하여 상호이해와 사회통합 강화
  - 청소년다문화스포츠연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이 지역의 스포츠와 체력단련에 참가하도록 함
  -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의 포용 및 원주민 문화에 대한 포용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에서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한 서비스·전시

- 다문화와 다언어를 고려한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
  - 행정이나 서비스 등의 문화민감성 제고
  - 문화다양성의 기록과 보존
  - 인권교육, 다양한 인종차별금지 제도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모든 정책 수준에서 포용하여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
- 다양한 언어를 수용하고 언제든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동등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고려하며 정책이나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함
  - 피고용자의 문화, 언어, 영성을 수용하고 지원함
  - 두 언어 사용자(bilingual speaker)를 적극 채용하고 활용함
  - 직원들에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적절한 소통방법, 통역서비스 등과 관련된 훈련을 시킴
- 이민은 외부시장과 연결시켜 주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주고, 사회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 기업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인력의 다양한 배경을 활용

- 40% 이상의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 관리정책을 가지고 있음
- 채용과 승진에서 인종차별의 제거
- 해외에서 습득한 기술을 정당한 기술로 인정하고 활용
- 영어 이외의 언어도 이용토록 하고 통역을 활용
- 타문화 이해 훈련을 제공
- 다문화 팀을 구성하고 다문화 마케팅을 실시
- 소비자의 다문화배경을 고려하여 문화적 민감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나 상품에 반영
- 직원 다양성 관리를 통하여 민족 간 장애와 편견을 없애고 조화로운



관계를 조성하여 직원의 생산성, 유연성, 창조성을 활용하려고 함

-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고려하여 마케팅 대상을 다양한 민족과 나라로 확대하고 이들의 구매를 확대시키고자 함

#### □ 주정부의 다양성 정책은 다문화정책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비영어권 고용자에 대한 평등고용지원, 할당고용제 실시, 이민자의 직업프로그램 참여를 촉진, 해외의 기술이나 자격증을 재교육하고 인정,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지원, 예술가들의 해외활동을 지원
-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다양한 집단에 더 잘 제공하기 위해 영어 이외의 언어와 문자도 사용하고, 다문화집단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제고
- 다양성 인식을 제고하는 훈련을 시키고, 비교문화적 훈련을 제공하며, 해외와 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공서류를 영어 이외의 문자로도 만들고,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홈페이지를 다언어로 제공토록 하고, 다문화공동체를 지원하며, 학교와 행정에서의 통역체계를 강화함
- 예술진흥기금을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지닌 사람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출신이 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다문화예술센터를 지원하고, 학교나 공동체에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촉진함
- 다양한 언어문화 출신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민감성을 제고하며, 학교의 다문화포럼 및 다문화축제에 참석하도록 하며, 유학생의 날이나 몰입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민족프로그램이나 아시아프로그램을 강화함
- 다양한 이민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일교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호국제학생교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반인종차별 훈련을 강화하고, 새로 도착한 난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화하며, 다문화에 기반한 공동체발전전략을 실시함

## 6. 미국

### 1) 미국의 다민족, 다문화 현상

#### □ 미국 센서스를 통해 본 개요

- 2012년 미국인구는 3억1500만명 중 백인 64%, 히스패닉 16%(백인 9%, 혼혈 6%, 기타 1%), 흑인 12%, 아시아인 5%, 원주민 1% 정도임
- 2010년 미국센서스에 따르면 13%인 4000만명이 외국출생이며, 주로 중남미 출신(53%)이고 아시아출신(28%)이 그 다음으로 많음
- 개신교 51%, 천주교 24%, 유대교 2%, 모르몬교 2%, 불교 1%, 이슬람 0.6%로 기독교계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총인구의 80%,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20%(스페인어 3454만, 중국어 246만, 프랑스어 198만, 타갈로그어 148만, 베트남어 120만, 포르투갈어 110만, 한국어 106만, 등)에 이름
-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독일계가 15%(약 4,300만), 아일랜드계가 11%(3,050만), 아프리카계가 9% (2,500만), 영국계 9% (2,450만)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와 살고 있음

### 2) 미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 □ 다양성 정책의 배경

- 1960년대 게토폭동 등으로 동화정책이나 ‘용광로론’이 실패한 것이 명백해지자 각각의 민족적 특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도모하는 문화 다원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불만에 찬 소수민족들을 달래기 위해 문화다원주의가 도입된 것임
- 인종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키는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통과되고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백인중심주의를 상당히 개선하게 되었음

- 1960년대 후반, 대학교에 소수민족연구소나 흑인, 아시아인, 인디언을 다루는 과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음
- 다문화주의(또는 문화다원주의)를 통해 여러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상호인정을 통해 소수자 문화를 긍정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됨
- 정부는 능동적 참여보다는 가이드만 제시하고 방임을 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다문화정책을 자유방임형 다문화주의로 분류함
-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주로 교육과 기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다양성 관리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미국의 다양성 정책은 다양성을 통한 미국의 풍요로움과 창조성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민족의 공존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현황

- 미국은 국가수준에서의 명시적 문화정책을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주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음
- 정책적으로는 창조적 기여를 유도하기보다 다양한 민족의 관리와 적응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조세제도나 지원제도를 통하여 민간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주마다 또는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어 다른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움
- 문화적 다원주의로서 다문화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은 다문화주의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음
- 이민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나 언어교육프로그램 등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박물관이나 전시관들도 미국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 집단의 이민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다양성을 드러내는 시설로 간주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각각의 민족들이 다양한 시민단체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 이민자들을 돕고 있음

## □ 주 정부의 다문화정책

-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다문화정책은 국가보다 주나 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짐
- 뉴욕주는 1989년 다문화주의를 관용의 대상을 넘어서 보존하고 확대해야 하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규정하는 선언을 하게 됨
-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로 도서구입과 서비스에서 지역의 다민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됨
- 이민자 지원센터의 설치
  -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 정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화
  - 이민과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사회복지 서비스, 공교육 제도의 설명 및 제공
  - 이민자들의 적응과 취업을 위한 영어교육, 기능교육, 취업안내 등을 제공
- 이민자 문화유산주간: 특정 시기(대개 4월 말 ~ 5월 초)를 정하여 뉴욕시의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뮤지엄, 공공기관의 전시공간 등 다양한 시설에서 일제히 다민족들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는 문화행사를 개최<sup>18)</sup>
- 지역의 다문화자원 발굴과 아카이빙
- 인문교과과정의 다양화
- 행정서비스에 통역이나 이중언어 사용을 장려

18) 조현성 저,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소수민족 언론의 지원
- 다양한 언어와 종교를 가진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 지원 프로그램

### 3) 미국사회에 대한 다양성의 긍정적 기여

□ 플로리다(2008)<sup>19)</sup>는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창조적 활동을 자극한다고 주장

- 다양성의 대표적인 지수인 게이의 비율이 높을수록 하이테크와 같은 창조적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미국도시의 자료를 입증하였음
  - 플로리다는 게이의 인구수 자체보다도, 게이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내는 그 도시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관대한 성격 때문에 창조적 계급이 모여든다고 보았음
  - 플로리다는 다양성의 또 다른 척도인 외국태생 거주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게이비율이 높음을 입증하였음
  - 즉,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매개로 게이비율과 이민자비율이 창조적 계급의 유입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은 교류,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융합, 문화적 창조성을 가능하게 함
- 따라서, 다양한 재능과 관점이 융합되면 사업적, 기술적, 문화적 혁신이 늘어남
- 위와 같은 특징은 정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해 자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19) 플로리다, 리처드 저, 이길태 역, 『창조적 계급』, 북콘서트, 2008.

## 제4장

# 한국의 문화다양성 현황과 문화다양성 정책

### I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현황과 기본 구조

1. 문화다양성의 존재현황과 역할
2. 문화다양성의 대내적 존재양식
3. 대외적 교류와 문화다양성
4.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5. 최근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과 특징

### II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범주와 요소들

1. 젠더
2. 세대
3. 지역
4. 이주자와 국제문화교류
5. 취약계층과 소수자

## I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현황과 기본구조

### 1. 문화다양성의 존재현황과 역할

#### □ 문화다양성이란 문화적 표현을 매개로 하여 나타남

- 2005년 10월 파리 33차 유네스코 총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에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하였듯이, 문화적 표현을 매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표현이 공존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다양성은 대체로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또는 집단으로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양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 따라서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의 주된 존재양식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이나 범주의 존재양식과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집단적(범주적)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성의 주된 흐름은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과 어촌, 젊은 층과 노년층, 중상층과 하층,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다양한 이민자, 성소수자, 다양한 직종, 기타 소수자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적 성향과 요소들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긍정과 상생보다 차별과 갈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 또 하나의 차원에서 인터넷, 영화, 방송, 책, 교류를 통한 해외문화의 유입에 의해 나타나는 문화다양성이 있음

#### □ 한국에서는 한국문화를 설명하고 정책대상으로 활용하면서 단일민족의식에 기초한 단일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여 문화다양성에 주목하지 않았음

-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의 교류, 공존, 혼종 그리고 이들의 창조적 역할에 주목하기보다는 한국사에서의 주된

문화 흐름을 단일민족의 문화로 강조하는 경향이 컸음

- 그 결과, 역사적으로는 한국문화전통의 주된 흐름을 부각시켜 왔고, 현대에 있어서도 주류문화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한국문화를 무교(巫敎)적 기층문화, 유교적 주도문화, 그리고 20세기의 서구문화의 영향증가에 따른 서구화된 한국문화를 주요 흐름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강함

□ 현재의 주도적인 한국문화는 서울중심의 주류문화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음

- 그 결과 과거의 다양한 문화요소들의 유입이나 형성과정 그리고 이들의 공존이나 혼종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에 있어서도 비주류문화나 소수자문화는 충분히 조사되고 제시되지 않는 상황임
- 비주류문화나 소수자문화들은 제대로 인식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는 상황에 처해있음
- 문화다양성이 가지는 장점보다는 단일민족문화의 동질성이 가지는 장점이 더 강조되고 있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정책적 활용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양한 대중매체의 증가로 전국에 동일한 문화요소를 생산, 공급하는 체계가 강화되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전국적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전국적인 연결이 가능한 매체(예,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의 증가로 각 지역에서 소수자로 남아서 무시되던 사람들끼리의 연결이 증가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독자적인 소통이 강화되면서 소수자의 문화적 활동도 증가하고 있음

□ 소수자 문화에 대한 차별이 약화되고 소수자가 적극 자신의 문화를 드러내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 증가하는 사례가 잘 보여 주고 있음



- 하지만 주류문화 이외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공존의 장점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적극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조적 활력의 활성화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문화다양성의 긍정적이고 창조적 기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사고와 이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창조성의 발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비주류와 소수자의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기여를 자극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원화된 사회를 긍정적으로 통합하는 통합정책임  
- 즉,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주류가 아닌 다양한 문화도 긍정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긍정적 정체성과 인식을 심어줘 능동적 기여를 하도록 하는 정책임
- 문화다양성 정책은 가치, 의미, 사상, 표현, 종교, 언어에 대한 관용과 자유를 강조하고, 미디어나 문화적 표현물이나 상품에서의 공공성을 인정함
- 한국은 노사·계층·세대·지역 간 갈등이 매우 높은 반면 해결·조정 능력은 최하수준이며, 법·제도 기반, 문화적 관용성, 사회통합, 시장제도의 합리성 등도 OECD에서 높은 수준은 아님
-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와 비주류집단과 그 문화를 긍정적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집단의 관용적인 공존과 사회통합에서 더 나아가 상호 긍정과 협력을 통해 사회의 전체적인 활력과 창조성을 높이는 것임

## 2. 문화다양성의 대내적 존재양식

#### □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문화다양성의 주요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다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비주류와 소수자가 존재하고, 주류문화에서도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어 다양성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함

-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의 주된 존재양식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이나 범주의 존재양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런 다양한 집단과 범주의 주된 흐름을 한정하여야 한국의 문화다양성을 정리할 수 있음

□ 한국에서 중요한 문화적 차이를 발생하는 범주로 젠더, 세대, 지역, 이주자(이민자), 계층, 다양한 소수자 등을 들 수 있음

- **젠더** : 한국사회의 가치관에 의하여 여성과 남성들에게 일정한 스테레오타입의 가치와 위치가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여러 영역에서 다른 행동, 사고,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적 차별화가 진행되어 나타났음
  -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이에 따라 여성의 가치, 사고, 행동이 낮게 평가되고 지위에서도 차별을 받아 고위직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세대** : 한국에서는 대체로 10년을 단위로 세대를 나누는 경향이 있으며, 2012년 그리고 이전의 각종 선거가 보여주듯이 세대에 따라 정당의 지지경향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대에 따라 경험과 환경이 크게 다르며, 다른 경험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가치, 사고, 취향, 행동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 : 한국은 지역색이 강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직장생활이나 업무네트워크에서도 지역색이 작동하여 출신에 따라 네트워크가 상당히 자기 출신 지역으로 편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에서 지역적으로 방언의 차이와 약간의 관습차이가 존재하는 정도이지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역색은 문화보다는 출신과 네트워크를 통한 차별화에 더 의존하고 있어 지역색을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움
  - 지역색보다는 도시와 농촌 또는 농촌에 유지되는 전통과 서구화된

도시의 차이가 더 큰 지역적 문화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지역과 관련된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도시와 농촌, 현대문화와 전통문화의 차이와 이들의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주자** : 한국으로의 이주자들은 국제결혼이주자, 화이트칼라 외국인, 블루칼라 외국인(노동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특수한 조건을 지닌 조선족 이민자,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 외국관광객(일시적 이주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들 집단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며 또한 한국에서 처한 상황도 다르고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정도도 다름

○ **취약계층과 소수자** : 한국문화에서의 주요한 소수자들은 장애인, 동성애자, 비주류 예술가 등을 들 수 있음

#### □ 같은 집단(범주) 내에서도 하위집단에 따라 또는 개인들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현대에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 퍼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문화산업 종사자, 창작 활동가, 예술가, 지식인, 언론인, 문화 관련 정책입안자와 기획자와 활동가들, 각종 조직의 문화를 변화하고 조직할 수 있는 지도자와 기획자들로 볼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문화요소를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은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집단에서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음

○ 원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문화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요소를 시도해보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내용은 항상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한국사회는 새로운 사고와 시도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회는 아님

○ 한국은 상대적으로 피짜, 소수자, 일탈자에 대한 관용이 적은 사회로서 이들에게 주류적인 문화를 수용하여 따르도록 하려는 압력이 강한 편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차별하고 낙인찍는, 또는 학교에서처럼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사고와 시도가 활발하다는 뜻은 그만큼 문화다양성이 크다는 뜻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임. 즉, 문화다양성이 잘 이루어질수록 창조적 활동도 잘 이루어져 해당 사회의 창조성이 높아짐
-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암기위주의 교육 그리고 사회나 회사에 있어서 상명하달(上命下達)의 순응주의적 성향으로, 새로운 사고나 시도가 활발한 편은 아니며 따라서 창조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자극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조직적인 기획과 지원으로 특정한 영역(예, 아이돌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음

### 3. 대외적 교류와 문화다양성

#### □ 20세기 내내 한국문화의 많은 부분은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았음

- 서구적 생활양식, 서구적 가치, 서구적 제도, 서구적 지식, 서구적 기술, 서구적 문화산업을 받아들여 많은 문화요소들이 서구에서 유입한 것임
  -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미국 발전된 문화산업, 한국인의 미국으로의 유학 등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유입된 주도적인 외국문화가 미국문화임
  -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서구문화를 일본을 매개로 하여 유입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서구 특히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유입되었음

#### □ 동양(일본, 중국) 문화 요소의 수입

- 일제 강점기에 많은 일본문화요소가 유입되었으나 점차 추방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본문화요소가 유입되었고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서적, 방송에서 상당한 정도의 일본문화를 배우거나 소비하고 있음
-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자, 유교, 사상, 제도, 기술 등에서 중국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으며 장기간 한국화되어 한국전통의 일부가 되었음

- 1980년대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심화되면서 현대적인 중국문화요소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구문화와 일본문화의 영향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임

**□ 외국문화요소들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

- 인터넷, 방송, 케이블방송, 영화, 출판, 음악, 디자인, 패션, 상품 등이 매개가 됨
- 외국에서의 이민자들과나 관광객의 유입에 의한 외국문화요소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이 보여주듯 여러 나라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여성들이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있음
- 외국회사의 한국지부를 위해서나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또는 한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화이트칼라, 컨설턴트, 임원진으로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사람들이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이들과의 접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여, 특히 중국관광객의 급증으로, 1년에 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음
- 한국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을 방문하면서 외국문화요소에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음
- 많은 외국의 문화요소가 한국문화와 혼합되어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문화요소를 사용하면서 익숙해져 외국문화요소들이 한국문화처럼 편안하게 일상화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요소가 서로 융합되고 혼합되어 이를 한국문화 또는 외국문화라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며 이들도 한국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큼

#### 4.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 □ 한국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기존의 다문화정책은, 대부분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구성원에게 한국사회에의 적응과 한국문화와 언어의 습득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화다양성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한국문화와 언어의 이해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반성하고,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타문화나 소수문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화다양성 정책으로서의 접근이 늘어나고 있음
- 전통문화, 민속문화, 향토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도 다양성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정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음

##### □ 다문화정책의 방향 전환 :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이주자에 대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음
- 이주민의 모국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다문화정책이 문화다양성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동화정책이나 적응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문화를 적극 표현하고 활용하고 이들이 한국문화와 다양하게 융합하여 풍부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성,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축소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문화다양성 정책이라기 보다는 지원과 인권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여성,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문화다양성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모두가 이들의 문화를 긍정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적극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문화요소들이

한국문화와 융합하여 풍부한 창조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5. 최근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과 특징

### □ 2010년 7월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음

- 한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앞으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를 통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 앞으로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반이 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문화다양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며,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의 다양성을 포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 또는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발의된 법률에서는 문화다양성이 융합과 창조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음

## II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의 범주와 요소들

### 1. 젠더

#### 1) 현황과 구조

##### □ 남녀분업

-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강고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고한 남녀역할차별의식이 존재함
- 이러한 역할분업은 동등한 분업이 아니라 불평등한 분업이어서 남녀차별의 토대가 되고 있음
- 한국에서 육아와 음식은 여성의 일이라는 관념이 강고하게 지속되고 있음
- 직장에 있어서 여성에게 보조적인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사결정권은 남성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음
- 남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집안의 육아와 음식과 청소와 세탁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게 되어 여성의 부담이 남성보다 아주 큼
- 직장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일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은 주로 남자가 수행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와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됨
- 직종에 있어서도 육아, 보건, 음식, 청소, 판매보조원 등 여성이미지에 합당한 직종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어 직종 간에도 남녀분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여성들이 많은 직종이 저임금 직종인 경우가 많음
- 직장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일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은 주로 남자가 수행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와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됨
- 여성다움에 대한 압력으로 패션, 화장, 성형, 언어, 태도, 육아, 가정



등에 집중하여 여성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이들 영역에서 여성들의 관심이나 관점이 주도적인 문화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 강고한 남녀분업의 틀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고 이는 남녀차별도 조금씩 약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2009년 여성의 대학진학률(82.4%)이 남성의 대학진학률(81.6%)보다 높았으며 이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처음으로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2.9%)가 남성참가율(62.6%)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 □ 여성차별

-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광범위하게 작동하면서 여성들의 문화권이나 자유로운 표현권이 제약당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에 의해 여성의 활동이 가정과 육아에 집중되어 왔음
  - 성년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부나 어머니로 간주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아이가 생기면 육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에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음
  - 이 부분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 출산휴가 등을 활용하여 직장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장에서의 승진에 차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육아와 출산이 여성의 몫이어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M자형 경력단절’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여성의 전문직과 고위직 진출이 크게 제약되어 있음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에 대하여 여성답지 못하다는 기존관념이 존재함
  -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하며 여러 층위에서의 여성차별이 지속되고 있음

- 업무, 소득, 지위,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남녀임금격차가 39.8%로 OECD 국가 중에서 남녀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28개 회원국 평균은 15.8%), 고속득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
  - 30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56%)은 남성(93.3%)의 3/5에 불과함
  - 여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많이 취업해 있고, 주로 비정규직이며, 사업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하고 있음
- 성 인지적 관점이 도입되어 각종 정책이나 규칙이 여성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집안에서 딸에 대한 차별이 감소되면서 여학생의 진학률과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여성이 더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음
  -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지만 채용, 업무분담, 의사결정권 부여, 비공식적 네트워크, 승진에서의 차별은 지속되고 있음

## □ 여성문화

- 여성문화는 여성의 독특한 위치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어느 정도 고유한 의미구조나 행동양식을 의미하는데, 여성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여 세부적인 집단으로 문화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집단의 묘사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고자 함
-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여성의 능동적인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제약당하고 있고, 남성 위주로 주류문화가 형성되어 주류문화에서 여성의 문화와 관점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음
  - 종속되거나 주변화된 여성의 위치에서의 경험하는 세계와 지배적인 남성코드를 습득하여 세상에 적응하는 세계관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충분한 자아존중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능동적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침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리를 매개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역할을 매개로 여성들의 공통적인 경험의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성문화와 다른 여성문화가 형성되고 작동되고 있음

- 여성이 여성스러운 일이나 여성스러운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여성스러운’ 영역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문화들이 나타남
- 사회적 분업과 차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성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여성문화가 존재함
- 여성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육아, 자녀교육, 화장, 몸매, 성형, 패션, 보석(주얼리), 보건 등에서 여성주도적인 문화가 형성됨
- 학업, 놀이, 유흥, 예술 등에서도 남녀가 조금 다른 성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 남녀가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음
- 예술이나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남녀가 선호하는 장르나 콘텐츠가 다름
- 남녀가 공존하는 공간(예를 들어 가족이나 회사)에서도 남녀의 행동과 소통방식이 다르고, 네트워크가 다르게 구성되는 경향이 있어 문화차이가 나타남
-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변호사로서 변호활동을 하거나 과학자로서 실험을 하더라도, 여자들의 일 스타일과 남자들의 일 스타일은 다른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차별적 인식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노력과 문화형성이 나타나고 있음

○여성 문화 활동의 차이와 특색<sup>20)</sup>

- 남성은 대중문화를 선호하나 여성은 순수예술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남녀 간 예술 관람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음
- 남성보다 문화비 지출이 적고 집중적 관람경험도 적은 편임
- 문화 창조와 생산의 중요한 영역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남성보다 경력이 적고 지위가 낮음
- 여성의 문화유산, 여성의 생활문화, 여성의 가치관 등 여성과 관련된

20) 박선영·황정미·박복순·류정아,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문화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

- 출산, 육아, 자녀교육을 여성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여성주도적인 문화가 형성됨

## 2) 여성문화와 관련된 정책들

### □ 여성정책

-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지향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1983년 정부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여성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게 되었음
-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부서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배치되어 양성평등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 분야로 다루어지도록 하였고, 기존 여성정책이 지니고 있었던, 여성을 주변적이고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벗어나 주류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이어 2차, 3차 계획을 세워 수행하였고 현재 4차 계획을 수행 중에 있음.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남녀평등의식 제고와 성차별 개선
  -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 남녀평등문화의 확산
  - 성 주류화
  -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 여성인력 양성 지원
  - 평가에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 경력단절 여성 등의 여성취업지원 기반 구축

- 성별영향평가 실시
-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여러 영역에서 여성채용할당, 여성우선지원, 여성공천할당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한계가 있음
-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예산, 인력, 전담기구, 정책개발, 정책평가 등에서 아직 충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여성문화정책

- 문화관광부는 2003년~2004년에 걸쳐 여성문화 TF 팀을 운영하여 문화정책에서의 성 관점의 반영을 점검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부족하였음
- 문화정책을 기초를 정리한 『창의한국』<sup>21)</sup>에서는 여성문화정책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실제로는 남성위주의 정책으로 수립됨
  - 남녀 간 정책결정력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여성능력의 차이로 간주함
  -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성문화역량 계발을 제한함
  - 여성을 고려한 지원정책과 문화생태구조가 열악함
  - 문화콘텐츠와 매체에서 긍정적 여성 문화정체성이 부족함
-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sup>22)</sup>는 여성문화정책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가치의 실천적 기반조성
  - 여성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의 실천
  - 여성의 문화정체성 확립

21)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2004, 145-146쪽.

22) 류정아·김이선 저,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90쪽.

- 여성문화정책도 양성이 평등한 문화를 도모하며, 각 문화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며, 여성의 고유한 특성들의 장점을 살리고자 함
  - 기존의 문화정책은 대체로 여성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성과 관련이 없는 무성적(無性的) 정책이었지만, 남성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왔기 때문에 남성적 관점이 주로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정책이 끼칠 수 있는 성별 차별적 영향에 대해 점검과 이를 고려한 문화정책의 수립이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
  - 여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표현하게 하는 문화정책은 제한적임

### 3)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문화

#### □ 여성문화의 긍정적 역할

- 여성의 교육 및 취업의 증가로 남성 중심의 주변적인 문화를 넘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기표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여성회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한 여성문화교육이 크게 급증하고 있음
- 여성이 남성과 다른 가치, 견해, 감성, 의미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문화적 풍요성을 높이는 것임
  - 여성의 문화유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확산시키면 한국문화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임
  - 여성적 특징과 여성적 문화들이 장점으로 기여하여 한국문화를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차이를 긍정하고 불평등을 제거하여 문화적 차이가 우열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다양성의 하나로서 더욱 풍요롭고 창조적인 문화생활의 원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이나 전통적인 주부/어머니 역할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문화 창조자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아존중감과 능동적인 정체성이 크게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여성도 더욱 주체적인 문화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외국계 회사들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창조력을 상대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회사들보다 고위직에서의 비율이나 역할이 큰 편임
- 한국사회의 고령화로 피부양인구가 급증하여 생산적인 노동인구를 확대해야 하는데, 여성과 이주민이 가장 중요한 대상임. 이들의 창조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정체성, 자아존중감, 창조성을 높여 내부적 참여 동기를 자극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함
- 여성문화의 활성화는 남성에게도 감수성과 표현을 확대시켜주고 또한 이에 자극받아 다양한 문화의 융합적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임
- 문화산업과 상품판매에서 문화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문화의 활성화는 더욱 풍부한 문화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문화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임
- 특히 21세기는 지식, 정보, 감성, 창조에 기반한 창조경제시대로서, 섬세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에 예민한 여성의 문화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여성문화의 활성화는 문화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동등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임

#### □ 여성문화에 대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여

- 문화다양성 정책은 특정 집단(여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오히려 그 집단이 가진 문화를 다르지만 동등하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것을 요구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여성의 문화권을 적극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양성평등을 문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임
- 문화다양성 정책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상호 인정과 긍정으로 여성도 더욱 능동적인 사회주체로서 한국문화의 창조적인 역량에 기여하게 하여 한국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임

- 문화다양성 정책은 여성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여로 남성들에게도 더욱 풍요로운 문화 환경을 제공해줄 것임
- 문화다양성 정책은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의사결정기구, 위원회, 고위직, 임원직 등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집단 간의 불균형과 소외를 해소하여 다수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은 여성들의 재능, 표현, 기여, 경험을 공공장으로 이끌어내 여성의 창조력과 기여를 확대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이끌어 냄으로서 개개인이 더욱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 2. 세대

### 1) 현황과 구조

#### □ 급격한 세대변화

- 한국에서 세대는 386세대(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30대)처럼 대개 10년 사이로 나누거나, 베이비부머나 유신세대 등 당시의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나누거나, 노인은 65세 이상이라는 법적인 연령에 기초한 노인세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한국은 세계사적인 압축 성장으로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여, 세대 사이의 사회경험의 차이가 아주 큰 나라임
  - 압축 성장으로 농업사회에서 주로 성장한 세대(농업세대, 60대 이후), 공업과 아날로그 사회에서 주로 성장한 세대(공업세대, 40~50대), PC 통신과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IT세대, 20~30대)가 공존
  - 농업세대는 6.25 시기까지 태어나 초기압축산업화를 담당하였고, 공업세대는 6.25 이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압축산업화의 후반을



담당하였고, IT세대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거나 IT와 디지털 경제의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음

- 질적으로 서로 다른 성장경험,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의 차이로 세계관과 취향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분화가 나타나지만 이곳에서는 세대의 주요 흐름에 집중하여 커다란 세대관계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함

## □ 세대 격차<sup>23)</sup>

○과거에 비하여 세대변화의 속도가 빨라 세대 사이의 격차, 세대사이의 갈등, 세대사이의 문화적 충돌이 이전보다 강한 편이며, 특히, 세대격차가 선거 때마다 세대 간 지지정당의 차이에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

- 대통령 선거에서 20-30대는 60% 이상이 중도(민주당 등), 진보(민주노동당, 진보당 등) 정당을 찍고, 50대 이상은 60% 이상이 보수(새누리당 등)를 찍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 정당과 무소속이 한꺼번에 출마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애매하지만 대체로 20-30대는 반보수, 50대 이상은 친보수 성향을 보임
- 수도권 도지사나 시장 선거에서도 위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02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20-30대는 30~35%가 보수를 찍고 나머지가 중도를 찍고 있음
- 2002년 선거에 비해서 2012년 선거에서는 20-30대가 1% 정도 더 중도를 찍고, 50대 이상은 7% 정도 더 보수를 찍어, 세대적인 격차가 더 확대되었음
- 지역과 더불어 세대별 투표율과 지지율은 어느 정당이 여당이 되는가를 가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다른 후보에 찍으면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음
- 2000년대의 선거는 세대 간 대립구도가 상당히 강고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23) 세대격차는 과거에도 있어서 플라톤의 『공화국』에도 “요즘 아이들은 반짝이는 것만 찾는다. 그들은 나쁜 습관을 가졌고, 권위를 경멸한다.”고 쓰여 있음

## ○ 소지하고 있는 미디어의 차이

- 20~30세대는 IT와 디지털 세대로 IT기기나 SNS의 사용에 익숙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향 소통에 익숙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대화와 점검과 영향이 아주 빠르게 진행됨
- 50대 이상은 IT기기와 SNS의 사용의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이 적은 편임. 인터넷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의사소통에 더 의존하며 친구들이나 신문방송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
- 스마트폰과 SNS로 무장한 35세 이하 회사원 신세대는 SNS를 이용하여 회사를 넘어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평가와 보상에 민감,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적응력,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 회사보다 개인생활을 중시함
- 이에 비해 45세 이상의 기성세대는 회사와 동료로 중시, 평생직장의식, 안정성 중시, 위계 중시, 집단주의를 보여주고 있음<sup>24)</sup>
- 인터넷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IT세대이지만, 아날로그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50대 이후임

○ 한국의 세대론과 세대문화코드. 바로 이 점이 연령적 세대 차이에 따라 의식의 차이가 생겨나서 그것에 따른 세대간의 가치차이에 의한 가치갈등이 가족생활과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세대문제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임
-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는 2019년에,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는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OECD 국가 중 빠른 속도로 기대수명이 높아져 2011년 81.2세임
- 201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 고령자 대책으로 고령자 재직기간 연장과 취업기회가 확대로 청년실

24) 예지은, 『신세대의 특성과 조직관리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1.

업이 증가함. 2005년 이후 50대와 20대의 고용률은 -의 관계를 보여 상호 대체관계임

- 노년층의 급증으로 근로세대의 노년세대 부양 부담이 커짐<sup>25)</sup>

○일본에서 빠른 고령화로 인구감소→소비감소→경기침체→저출산 심화의 악순환이 나타났음

- 일본에서는 하류세대, 한국에서는 88만원 세대가 나타남

○청년층 감소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이 하락하면서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노령화가 노동생산성이 조금 상승하기도 함

- 급격한 노령화로 일자리 부족과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나타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아짐

-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퇴직 연령 연장으로 청년층 시위가 대규모로 나타남

## □ 불안한 청년 세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20대 고용률은 58.1%임

- 2010년 20대 실질적 실업률은 23.1%로 4명 중에 1명은 실질적 ‘백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이 60% 정도여서 청년세대의 대다수가 취업불안을 경험하고 있음

- 20대의 비정규직 임금은 월 110만원 정도여서 상당한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

- 세대 간 일자리 경합, 의사소통방식과 범위의 차이, 경험의 차이 등이 축적되어 세대갈등을 느끼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2013년 20~30대 85.6%, 50~60대 89.6%; 2003년 20~30대 56.6%, 50~60대 66.7%, 2013년 3월 2일 KBS뉴스)

○음악, 문화 등에 있어서 큰 세대 차이를 보이며 젊은 세대는 기존의 사회문화에 반항하는 성향을 띄고 있음

○현대인의 생활과 의식을 결정하는 학교와 직업생활은 연령적 세대층에 따라 유사한 경험을 가지게 함

25) 이찬영·태원유·김정근·손민중,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삼성경제연구소, 2011.

## 2) 세대 관련 정책들

### □ 청년정책

- 노년세대에 대한 정책과 비교하여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이 적은 편임
  - 노년세대의 은퇴, 노후, 건강, 복지수요가 많으며 또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더 높아 정치적 영향력도 더 크기 때문임
  - 청년정책은 대체로 일자리 정책과 대학정책에 집중되어 있음
  - 특별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은 별로 없지만, 문화예술교육과 향유프로그램이나 인력양성사업의 대상자로서 또는 강사나 운영자로서 청년층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전국에서 행해지는 각종 축제, 특히 부산영화제의 경우 청년층의 참여율이 가장 높음
-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훈련 프로그램, 해외봉사단, 해외취업의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병영문화 선진화 사업

### □ 노인정책

- 고령자의 임금 및 고용안정 보장
-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노인일자리사업
- 평생학습진흥계획 하에 노인교육기회 제공
- 문화바우처사업
- 문화원, 문화의 집, 복지센터 등에서 노년층이 향유자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음
- 노인문화정책에는 주로 건강프로그램, 취미프로그램, 언어교육프로그램 등이 많은 편임

### 3)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으로서의 세대문화

#### □ 세대문제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한계

- 한국의 세대문제는 이미 구조화된 삶의 경험의 차이, 현재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차이,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사소통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풀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음
- 과거경험의 차이는 이미 바꿀 수 없으나 현재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정의 차이는 경제정책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사소통의 차이와 분리는 노년세대의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사소통을 적극 지원하고 훈련시킴으로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음
- 현재도 노인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에서 다양한 인터넷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SNS에 대한 교육은 아직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의 입장에서는 세대의 차이를 상호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이 갈등보다는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발전하여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다른 세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교류와 교육이나 다양한 상호작용이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세대문화의 긍정적 역할

- 청소년문화는 가장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청년층을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세대는 IT와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보여줌
  - 청소년세대는 기존관습을 거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고와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세대임

- 청소년세대의 문화적 예술적 감수성은 빠른 흡인과 학습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하면 이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발산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수준 높은 수많은 문화요소들을 만들어낼 것임

○상대를 다른 가치를 지닌 갈등대상으로 보는 것을 극복하고 세대마다 다른 가치, 견해, 감성, 의미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문화적 풍요성을 높이는 것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함

○세대 사이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통하여 결국 긍정적 상호기여를 가능하게 함

○고령층을 ‘다양한 경험과 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고령층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및 능력을 적극 활용

○독일처럼 ‘다세대의 집’을 만들어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세대가 서로 어울리거나, 살거나, 소통하거나, 같이 일하면서 교류하여, 서로 다른 세대의 관점과 가치를 통하여 상대의 긍정적인 가치를 느끼도록 함

- 즉, 상호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면 상호존중과 협력이 훨씬 쉬워짐

## □ 세대문화에 대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여

○문화다양성 정책은 세대 간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거나 축소시키고, 서로 나타나는 문화가 다르지만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로의 문화를 다양성과 창조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것을 요구함

○문화다양성 정책은 각 세대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적극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세대평등을 문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타 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는 것임

○문화다양성 정책은 세대의 문화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상호인정과 공존을 도모하는 세대문화의 활성화를 문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임

- 문화다양성 정책은 세대의 문화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상호인정과 공존을 도모하는 세대문화의 활성화를 문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임
  -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각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세대의 문화를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토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상호 갈등보다는 상호 상생과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임
- 차이와 다양성의 긍정이 창조성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유치원부터의 정규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문화적 세대차이가 대립보다는 상생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임
- 문화다양성 교육과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상호 인정과 긍정으로 이들이 더욱 능동적인 사회주체로서 한국문화의 창조적인 역량에 기여하게 하여 한국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임. 그렇지 못하면 노인들은 스스로를 장애물로 인식하여 삶의 질과 의미가 떨어지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도 부담을 주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은 세대들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여로 전체 구성원에게도 더욱 풍요로운 문화환경을 제공해줄 것임. 고령층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로 행복감이 다른 세대로 전이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양한 사회집단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노인들의 재능, 표현, 기여, 경험을 공공장으로 이끌어내 여성의 창조력과 기여를 확대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이끌어 냄으로서 개개인이 더욱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 3. 지역

#### 1) 현황과 구조

#### □ 선거에서의 지역적 지지 편차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함

- 지역감정 또는 지역차별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문화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선거를 매개로 재생산되는 정치적 성격이 훨씬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 방식의 두 당의 대립적 선거구도가 지속되는 한 지역의 정당지지 차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편차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과정이므로 문화다양성 문제와는 다른 이슈여서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겠음
  -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이후 정당지지격차가 남부와 북부 사이에 크게 나타났고, 남부는 민주당의 절대지지 지역이었으나, 존슨대통령의 적극적 민권정책으로 이에 반발하면서 남부는 공화당의 텃밭이 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결정적인 경제적 구조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정당의 정책변화가 있을 때 지지정당이 바뀌는 경우가 나타남.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없을 경우 수십 년 이상 지역적 정당지지가 지속되고 있음
  - 영국(특히 스코틀랜드)이나 이탈리아(북부와 남부)에서도 선거에서의 정당지지도에서 지역적 편차가 장기간 나타나고 있고, 획기적인 정책변화나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없으면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줌
- 문화적 차이보다는 상호간의 대립적 인식구조가 더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각 지역문화의 내용상의 다양성보다 공존과 긍정의 자세가 대립적 인식구조를 완화하는 데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는 지역을 매개로 한 차별이나 낙인을 찍지 않고, 문화적으로 상호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상호공존과 협력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다양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성과 관련된 자세의 문제임



## □ 도시와 농촌을 매개로 한 현대와 전통의 문화적 표현양상에 주목하여 농촌의 전통문화를 다루고자 함

- 농촌과 도시를 매개로 한 전통과 현대는 차별보다는 도시의 성격과 변화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임

## □ 이농(離農)과 전통문화의 붕괴

- 한국의 압축성장과정에서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빠른 속도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촌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다가 현재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보임
  - 1960년 농촌에 약 1,800만 명의 인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300만 명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전통농업에 기반한 것이나, 인구감소와 전통농업의 변화로 인해 일상에서 행해지는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음
- 개항 이후 한국의 서구화와 과학화가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 도시에서부터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크게 약화되었고 이어서 농촌지역에서도 전통문화가 크게 약화됨
  - 신문, TV, 교과서, 학교교육 등을 통하여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농업도 기계화되면서 다양한 민속신앙, 전통생업, 전통도구, 공동농업노동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음
  - 산업경제로 편입되면서 다양한 장인전통, 자가공급, 자가제조, 자가생산이 급속하게 감소함
- 전체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속문화는 지난 50년간 크게 약화되었음
  - 각 지역마다 지역적 특색을 가졌던 전통문화가 약화되고 서울에서 주도하는 대중문화나 정보가 TV, 인터넷, 서적, 신문 등을 통하여 유입되어 전국의 문화가 서울문화에 의해 획일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어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과 민속이 남아 있고 또한 부활되는 경우도 있음

## 2) 지역전통문화와 관련된 정책들

### □ 국가의 지역전통문화정책

- 지역문화원을 통한 향토사 조사 및 대중화 사업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확충사업
- 지역문화재 수리 및 복원 사업
- 지역의 특화된 문화행사의 지원
- 전통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급사업
- 국학 자료의 수집확대
- 전통예술의 복원 및 재현
- 역사나 전통문화도시 사업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활성화 사업
- 한스타일 사업, 전통문화산업화, 지역문화산업화

###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통문화정책

- 전통문화요소에 기초한 축제 등을 통한 문화매력물의 창출
- 다양한 전통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사람들에게 농촌과 전통에 대한 향수와 도시로부터의 일탈을 제공함
- 지역의 전통문화와 민속문화에 대한 조사사업
- 역사유적이거나 문화유적의 복원 및 정비사업
- 전통문화나 민속문화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 박물관, 전시관을 통한 향토문화의 보존 및 대중화사업
- 전통문화나 민속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

### □ 전통문화의 기록과 복원

- 전통문화가 사라지면서 이에 대한 기록을 수행되었고, 일부의 노력에 의해 현장에서의 복원(예를 들어 풍물패, 그러나 이전과 똑 같지는 않

다)과 보존(박물관, 전시관, 기록)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정부나 지자체도 정체성의 확립이나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문화의 복원과 보존을 시도하고 있음
- 정체성의 확인이나 관광객유치, 또는 향수를 위하여 지자체나 주민의 복원노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다시 연회(특히 축제나 절기나 전통연회)하거나 전시하거나 상품화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역적 정체성 또는 민족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전통문화를 관광객의 유인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음
- 전통문화는 지역적 특색을 지니는 소전통, 전국적인 통치체제를 통해 확산된 대전통을 포함함
  - 민속문화(소전통)는 구술과 연회를 통하여 강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 유교나 읍치체제와 같은 대전통은 국가통치체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줌
  - 전통사회에서 걸어서 다니고 입으로 말하는 상황에서는 고개나 강이나 산을 기준으로 이쪽과 저쪽의 방언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현재는 언어나 향토문화의 지역적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이 전통적 농업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전통농업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어 유지될 수 있는 전통(예: 한복)도 서구화로 사라지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부활시킬 수 있음

### 3)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으로서의 지역전통문화

#### □ 전통문화의 긍정적 역할

- 지역문화는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원천이며 지역민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삶의 의미에 역사적 무게를 더함
- 전통문화나 민속문화나 향토역사는 지역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임
- 전통문화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존경심을 갖게 만드는 원천임
- 전통문화는 그동안 한국인이 쌓아온 창조성의 보고이며, 현대문화와 융합하여 의미와 멋과 활용도가 뛰어난 창조적 문화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음
-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로 한국정체성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반발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향수로 전통을 찾는, 또는 현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통을 찾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한국문화의 창조성과 차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전통문화이며 또한 외국인에게 가장 이국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요소이기도 함
- 전통문화나 민속문화가 문화다양성을 확대하여 상상력과 창조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음

#### □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여

- 다양한 지역문화와 전통문화는 한국문화 다양성의 원천으로 한국인의 다양한 상상력과 창조성을 보여주면 또한 그 출발점이기도 함
- 농촌의 전통문화나 민속문화는 조상이 쌓아온 삶과 전통의 축적물로서 지역 환경에 적응하여 생성된 그 지역에 가장 알맞은 삶의 지혜임
- 전통문화와 민속문화를 낙후된 문화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역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한 창조성과 생존력이 강한 문화요소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요소는 전통적인 급속한 환경변화로 약화되었지만 삶의 지혜와 전통을 담고 있음

- 과거나 지역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창조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전통문화나 민속문화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알맞게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열린 전통문화로서 다양한 요소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창조로 나아감
-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불가능하여 퇴장해야 하는 경우 이들을 기록하여 다양성의 요소를 보존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임
  - 사라졌다 하더라도 기록을 통하여 전통문화와 민속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확인하고, 지역의 특성과 활력을 창조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원천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보존과 기록을 통해 결과적으로 현대 한국인이 상상력과 창조적 자극을 받고 더욱 의미 있는 문화요소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대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역사적 무게를 지닌 심층적 호소력을 지닌 문화로의 창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4. 이주자와 국제문화교류

### 1) 현황과 구조

#### □ 한국으로의 이주민 급증

- 2011년 한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수는 근로자 55만3천명, 결혼이민 14만1천명, 유학생 8만6천명, 동포 8만3천명, 기업투자자 3만천명, 기타 10만6천명이며, 귀화자는 11만명 (혼인 7만명, 기타 4만명), 외국인이나 귀화자 자녀는 15만명으로 총 126만명으로 한국인구의 2.5%임
- 2012년 말 불법체류자 수는 17만 6천명임
- 중국인이 70만 명 (조선족 49만 명), 동남아 28만 명, 미국 6만5천명, 남부아시아 5만1천 명 등이 살고 있음
- 2006년 처음 조사 이후 년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인구 규모면에서 경기 안산(50,864명), 서울 영등포(50,531명), 구로(37,359명), 경기 수원(35,657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며,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38개 지역임
-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경남, 경북, 충남 등의 공장에 취업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민자는 전국 농촌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외국인 입국자수는 1995년 375만명에서 2012년 1110만명으로 증가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빠른 증가는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접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주자나 관광객이나 매체를 통한 타문화요소의 접촉과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언어, 종교, 생활관습, 가치관의 차이가 큰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음

## □ 한국인의 해외진출 확대

- 해외동포는 한국과의 국제연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 그리고 세계문화의 한국으로의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0년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270만명, 미국에 217만명, 일본에 90만명, 캐나다 23만명, 러시아 21만명 등 169개국에 726만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음
- 해외방문이나 여행이나 유학과 다양한 주재활동(住在活動)을 통해 해외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귀국하여 한국에 전파하고 있음
  - 내국인 출국자수는 1995년 382만명에서 2012년 1374만명으로 증가하여, 이제 해마다 인구의 30% 정도가 외국을 방문하고 있음

## □ 국제적 교류와 접촉의 급증

- 이주자나 관광객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와 접촉의 급증하고, TV, 인터넷, 신문 등이 일상적으로 외국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음
- 외국인 영어교사가 전국의 학교나 학원에서 광범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31%인데 우리나라는 11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함.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무역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세계를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양한 매체(인터넷, 방송, 영화, 책, 예술, 행사, 사람 등)와 상품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와 타문화요소 접촉의 증가
- 외국문화상품 유입의 가속화, 문화상품의 세계적 배포 및 소비체계의 발전
- 이와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문화다양성이 일상적인 환경이 되도록 만들고 있음

## 2) 이주민과 관련된 문화정책

### □ 기본 현황에 대한 단상

- 이 글에서는, 이주민 중에서 다양성과 관련된 의미가 큰 다문화정책을 주로 다루겠음
-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편임
- 해외에서 문화원과 문화센터를 통한 한국문화의 확산, 한류의 확산, 해외동반자 사업, 한국알림이사업, 다양한 문화교류와 축제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음
- 해외교포들을 이용한 한국문화의 해외확산 노력도 이어지고 있음
- 증가하는 한국문화의 해외확산과 타문화와의 접촉은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상호관계가 복잡 미묘하며, 문화다양성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어,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음

### □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주요 문제

: 아직 문화다양성에 의한 창조성 확대에의 능동적 기여보다 적응이 더 시급한 문제로 간주됨

- 결혼이민자
  - 언어문제, 문화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 적응곤란
  -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이혼 증가
  - 위장결혼 등으로 자녀양육 곤란 및 가족해체 사례 발생
- 외국인 근로자
  -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의료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 미흡
  -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내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문제



- 외국인 근로자의 분화 : 하층근로자로 일하는 외국인(주로 제3세계 출신)들과 영어강사나 화이트칼라나 전문직 또는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외국인(주로 선진국 출신)들은 한국에서의 영향력과 문화적 함의가 크게 다름

#### ○유학생

-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 다양한 장학제도 확충의 문제
-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체험 부족
- 학교생활 적응 및 성적 문제

### □ 정부의 다문화정책

#### ○정책 프로그램의 주요 범주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대체로 한국문화, 한국어, 한국 사회에 대한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언어발달지원(한국어)
  -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 외국인주민 교육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
  - 외국인 유학생 적응지원
  - 외국인 근로자 적응지원
- 말은 다문화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응과 동화를 돕기 위한 동화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문화정책에서도 아직 다양성에 의한 창조성 확대에의 능동적 기여보다 적응이 더 시급한 문제여서 적응에 집중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이주자의 모국문화의 다양한 표현과 창조적 활용과 관련된 정책도 도입되어야 할 것임

##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 ○정책 프로그램의 주요 범주

- 한국어 교육 : 기초·초급·중급·고급 등 수준별 한국어 교육
- 가족교육 : 이민자·부부·시부모·자녀·예비부부·가족통합교육
- 문화교육 : 한국문화, 배우자 국가문화, 생활정보, 문화적 차이 등
- 정보화 교육 : 컴퓨터 교실
- 직업교육 : 운전면허, 미용, 영농기술 교육 등
- 개별(체류·경제·직업·인권·가정폭력·성폭력 등) 상담
- 가족생활 상담, 부부상담, 각종 치료 상담
-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단위 자조모임 결성
- 다문화가족캠프 개최, 한국문화체험행사
- 산전·산후교육, 출산, 육아, 가사도우미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언어발달 검사, 심리치료
- 학교생활적응지원, 방과 후 학습지도, 다문화 교육 등
-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홍보, 다문화 축제 및 캠페인,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자체의 다문화정책도 아직 다양성에 의한 창조성 확대에의 능동적 기여보다 적응이 더 시급한 문제로 간주됨

## 3)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으로서의 이주민의 타문화

### □ 타문화요소의 역할 증가

- 빈번한 국제이동과 이주, 그리고 접촉으로 타문화요소가 대거 한국에 유입되고 또한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다양한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한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세계에서 리더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대처능력 제고가 필요함
- ‘한민족’ 의문화만으로는 국내외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타문화요소와 문화다양성을 적극 수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한국문화 자체가 다양한 타문화를 수용하고 있고, 타문화와의 공존과 융합을 통해 한국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 □ 문화다양성 확대의 의미

- 이주자들과 유입된 외국문화요소들은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원천임
-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집단의 문화와 창조성을 수용하여 한국문화의 폭과 창조력을 제고함
- 이주자의 문화를 융합하여 한국문화의 창조적 활력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호소력을 가진 문화요소를 창출
  - 그러기 위해서는, 출신국 문화의 다양한 표현과 향수를 보장하여 이주자들이 문화적 활력과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해당국가 이주자의 문화적 창조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됨
  - 특히 출신 모국의 문화와 결합한 문화콘텐츠는 해당국가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함. 한류의 폭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
- 출신국가의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다양한 문화를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문화의 포용과 융합으로 한민족문화가 전통을 넘어 다양성, 포용성, 창조성을 지닌 한국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다양성이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호소력을 가진 문화로 성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임

## 5. 취약계층과 소수자

### 1) 현황과 구조

#### □ 사회적 취약계층

- 한국에서 중산층이 계속 축소되고 양극화되고 있으며 하층이 늘어나고 있음
  -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1인당 GDP가 세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비중은 8%나 감소했음. 중산층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감소하고, 하층은 1990년 7.1%에서 2010년 12.5%로 증가했음
- 세대를 넘어 계층이 전승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계층 간 문화적 격차와 불통이 증가하여 문화적으로도 계층적 단절이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국민문화향수 격차 실태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일반국민 평균 관람회수에 4.5배의 차이가 나며, 문화지출비는 10배 차이가 나고 있음
  - 문화적으로 계층적 단절이 나타나고 하층뿐만 아니라 중하층까지 문화향유와 문화창조에서 소외되며, 한국문화가 지니는 창조적 잠재력도 그만큼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과 성소수자들도 사회적 편견으로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긍정적 정체성을 갖기 힘든 상황이고 문화적 기여도 그만큼 제약당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차별이 인권적 차원에서도 빨리 사라져야 하며, 문화적으로도 이들이 지닌 관점과 표현이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 한국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봉쇄되어 있음

#### □ 승자독식체제의 대중문화와 예술

- 문화와 예술의 상업화, 산업화, 승자독식체제가 정착되면서 소수가 득

세하고 다수가 활력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이들이 관심의 대상인 소수에 집중하여 한국이나 세계에 퍼트리기 때문에 이들 소수가 해당영역을 주도하고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예술활동에서의 명성과 보상이 소수의 명망가에 집중되어 다른 많은 다양한 활동과 관점들이 활력을 가지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중예술이나 순수예술에서 소수의 명망가나 직업인이나 인기인들을 제외하고 창조적 활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김기덕 감독이 말하였듯이, 소수 영화사가 영화관을 독점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비주류 영화는 사장되어 영화의 다양한 창조적 활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이나 외국의 소수 영화가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다양성이 감소되면서 한국영화 창조적 활력이 감소될 수 있음
- 영화나 TV 그리고 뮤지컬 등에 밀려 훨씬 다양한 창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연극 등이 활력을 잃고 있음

## □ 차이와 낙인

- 소수자, 비주류 등 이질성을 지닌 사람들은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무시되거나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비주류, 소수자, 하층의 문화는 대체로 가치가 적은 문화로 인식되거나 일탈적인 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낙인 때문에 이들 소수자는 자신들의 문화와 행동을 숨기거나 또는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 동성애자, 피짜, 하층 등은 차별 속에서 자신들의 긍정적인 가치와 문화적 창조성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이들과 이들의 문화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거두고 한국의 정당한 성원과 문화요소로 긍정함으로써 이들의 활력을 높이고 이들 문화요소가 한국문화를 더욱 풍부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폐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모든 문화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삶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여주며 한국문화의 창조적 활력을 증대시키는 토대라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인권정책, 교육, 대중매체, 문화정책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 취약계층과 소수자에 대한 문화정책

### □ 취약계층과 관련된 문화정책

-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만들 정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임
-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소외계층 문화순회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프로그램 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랑티켓
- 소외지역에 대한 도서보급
-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지원
- 소외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활동공동체 지원
-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바우처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화와 지원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유지원정책에서 더 나아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다양성의 일부로서 이들의 능동적 창조자로서의 활력을 자극하는 데까지 나아가갈 필요가 있음

### □소수자에 대한 문화정책

- 다양한 기금을 통하여 예술가의 창작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음
  - 이들 예술가들은 자체소득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만들고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은 해당 예술가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당 시설에서 다수의 지역 주민(대체로 일상적으로 유료로 향유할 수 있는 계층보다는 저가의 또는 무료로 향유하는 중하층임) 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사업임
- 기부 매칭, 메세나,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돈이 없어도 창작이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문화예술향유 또는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 장애인, 소수자, 일탈자에 대한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이들이 사회의 정당한 능동적 구성원으로서 창조적 문화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으로서의 소수자와 취약계층

#### □ 취약계층과 소수자의 보호

- 사회적 취약계층, 소수자, 일탈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동등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본권 보장이 필요함
- 소외, 소수를 넘어서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문화향유와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사회의 정당한 일원이며 이들의 문화도 한국문화의 풍부함과 창조성에 기여한다는 문화다양성 정신을 확산시켜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 ‘일상화된 소외’ ‘내면화된 소외’를 벗어나서 능동적 자아정체성과 주체적인 문화생산자가 되도록 해야 함

#### □ 취약계층과 소수자의 긍정적 역할

- 취약계층이 사회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능동적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 창조력이 부족하기는 하

지만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닐 필요가 있음

- 상층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면 자신의 문화요소들이 지닌 다양한 감수성과 창조력을 승화시켜 표현하여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괴짜, 실험, 일탈적 문화요소들은 한국 문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새로운 한국문화 창조와 활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 따라서 괴짜, 실험, 일탈적 문화요소들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관용적으로 허용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 취약계층과 소수자의 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기여

- 계층적 문화단절이 계층간의 단절과 갈등을 심화시켜 한국의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필요함
- 취약계층의 문화도 다양성의 일부로 문화 창조성의 토대가 됨을 인식해야 함
- 자신들의 사고, 표현, 예술, 문화들을 긍정적으로 표출하여 모든 계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중상층의 문화와 다르지만 상호이해와 힐링 그리고 상생에 도움이 됨
- 취약계층이 중상층의 주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문화적 단절이 어느 정도 약화될 것임
- 문화단절로 부정적 자아정체성과 폐쇄적인 빈곤의 문화가 정착되면 세대를 이어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한국 성소수자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미국의 게이에 대한 연구에서 게이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창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면 이는 게이들이 창조성이 높은 집단이기도 하지만 게이를 허용하는 관용성과 개방성이 창조적 인재를 흡인하기 때문으로 봄<sup>26)</sup>
- 성소수자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더 잘 지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26) 리처드 플로리다 저, 앞의 책, 2008.



- 스스로 독특한 사고와 표현과 문화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힘이 강함
- 이러한 개성은 창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활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여 사회적 창조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활력이 새로운 문화요소와 콘텐츠를 창조하고 다양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괴짜나 일탈자들도 문화다양성을 확대하고 문화적 창조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집단임
- 이들과 이들의 문화를 타자화하여 억압할 대상으로 간주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창조성은 사회적 활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됨
- 매니아들의 전문적인 영역의 발전은 해당 분야의 문화를 심도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이들 모두가 지니는 차이와 다양성은 창조성의 근원이며 발전의 토대이므로 그러한 차이와 다양성을 축하하고 장려하고 즐길 필요가 있음

## 제5장 결론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1.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문화다양성 정책의 목표
3. 문화다양성 정책의 구체적 실행

## 1.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 방향

### □ 문화다양성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다는 ‘문화 다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년)은 서문에서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독특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 한다고 이야기하였음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2005년)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양식”(제4조 제1항)으로 정의하였음

###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은 ‘한국문화’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함

- 1960년대 ‘민족문화의 보전과 창달’이라는 구호에 등장하는 민족문화의 개념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 속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음. 이는 국민이 없었던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권 또는 국가의 정당성 및 우수성을 증명해야 하는 절박함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좁은 의미의 한국문화는 대한민국 국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라 할 수 있으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한국문화의 주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즉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을 가리키는 ‘재외동포’와 한류팬을 포함하여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하고, 한국문화 애호가와 한국문화연구자(전문가, 실천가)를 비롯하여 한국문화발전에 기여할 사람들을 포함시켜 감으로써 외연을 확장하여, 그들을 모두 한국문화의 주체로 보아야 함

### □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문화의 다양성 자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

### 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문화의 다양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 문화란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 자체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함
- 우리의 문화정책은 그동안 과거지향적인 민족문화를 추구하면서 문화의 원형을 중시해 왔음. 그러나 문화는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비전 제시가 원형보존보다 우선되어야 함
- 미래지향적인 문화다양성이란 문화의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과 열망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문화의 유연함을 말함

## 2. 문화다양성 정책의 목표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 목표하는 바는 ‘창의성’의 확대

-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체계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문화다원주의는 문화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2조 : 문화다양성에서 문화다원주의로)
-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풍성해진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이 보존되고 고양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이 진작되고 진정한 문화간 대화가 고무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7조 :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 문화소수자를 비롯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창의를 기여하게 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함

○ 다양함이 창의성이고, 따라서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양성과 관용이 창조의 핵심적 요소가 됨

□ 문화다양성은 발전을 위한 근간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다양성은, 단지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지적, 감성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3조 :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 정책은 보다 인간적인 삶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 내부의 다양성은 자신의 삶이 유일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강조함. 다양성은 대안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행 제도나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 존재할 수 있음

### 3. 문화다양성 정책의 구체적 실행

#### □ 문화기본법의 기본정신은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되어야 함

- 그리하여 문화다양성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함.  
즉, 최소한의 조건을 규명하고 확보하여,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과 자료수집 및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 문화다양성의 긍정적 가치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모국어를 존중하고, 언어다양성을 촉진하고, 유년기부터 여러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6)
- “지식의 소통과 전달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통적 교육방법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도록 하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8)
-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이자 교육 도구로서 디지털 문화를 장려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9)

#### □ 다양한 사회집단의 상황에 맞게 문화적 표현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노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들이 문화적 표현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소수자나 토착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및 배포와 그 활용을 위한 기회제공”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제7조 :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 **활동의 현황파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측정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지수의 개발
-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집단의 문화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안의 세계민족지를 작성할 필요
- 국립민족지박물관 혹은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을 건립하여,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가칭 ‘국가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학술단체협의회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능하다면, 문화다양성 전문대학원을 공공정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양성할 것도 고려할 수 있음(예 : 일본의 정책연구대학원)





## 참고문헌

나인호

2003 “문명과 문화 개념으로 본 유럽인의 가치의식(1750-1918/19)” 『역사문제연구』 제10호.

니나 오블젠

2008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저, 한경구·이목 역

2006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류정아, 김이선,

2004,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관광부

2004 『창의한국』 문화관광부.

박선영, 황정미, 박복순, 류정아

2007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베네딕트 앤더슨(B. Anderson) 저, 윤형숙 역

2004 『상상의 공동체』, 나남.

여성가족부

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예지은

2011 『신세대의 특성과 조직관리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2008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유철인

2008 “문화 다양성과 문화이해교육,”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이명진

2005 『한국 2030 신세대 의식과 사회정체성』,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태원유, 김정근, 손민중

2011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삼성경제연구소.

정정숙

2009 『고령시대를 대비한 문화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현성

2011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플로리다, 리처드 저, 이길태 역

2008, 『창조적 계급』, 북콘서트.

플로리다 리처드 저, 김민주·송희령 역

2010 『제3차 세계리셋: 아이디어 중심 창조경제로 비즈니스 새판 짜기』, 비즈니스맵.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Baeker, Greg

2001 National Report: Canada, The Council of Europe Transversal Study Project on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Diversity*, The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ERICarts(European Institute for Comparative Cultural Research)

2012 Country Profile: Sweden, In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4th edition.

2012 Country Profile: United Kingdom, In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3th edition.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Canada.

2012 Quadrennial Periodic Report on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pril 2012.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Multicultural Australia: United in Diversity*.

Federal Foreign Office, Germany

2012 Quadrennial Periodic Report on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5 April 2012.

Gupta & Ferguson

1997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Press, 1997.

Ministry of Culture, Sweden

2012 Quadrennial Periodic Report on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7 April 2012.

The Australian Multicultural Advisory Council

2011 *The People of Australia - Australia's Multicultural Policy*.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2011, *The Economic Advantages of Cultural Diversity in Australia*.

UNESCO

2009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UNESCO.